소년단

1957. 8

해 방 의 은 인

바로 열두해 전입니다.

붉은 별 빛나는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얽맸던 일본 제국주의 쇠사슬을 끊어 던져 주었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은인입니다.

해방된 우리 인민들은 밝은 앞길을 힘차게 전진하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들의 행복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 갑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은 날마다 큰 행복을 이룩합니다.

행복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들은 해방의 은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쏘련 군대는 피로써 독일 팟쇼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압박 받고 착취 받던 수많은 인민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세계 인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첫번째로 로동자 농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를 세운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에게 우리 인민들은 세계 인민들과 더불어 빛나는 그 은공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들은 마을과 거리에 탑들과 동상들을 세워 쏘련 군대의 은공을 길이길이 기념하며 후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남포시에 세워진 쏘련 군대 동상)

소 년 단 1957년 8호 내용

소설 들국화

◇황 민◇ 그림 림영환

해방을 맞는 그날까지 나는 꽃장사였습니다. 키는 엄부렁해도 꽃장사 밖에 할 수 없는 열 두살에 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다른 사정이 있었지요. 피대'줄이 얼기설기 탈리우며 사나운 기계들이 물려 돌아가는 그런 공장으로 날'삯 일이라도 내가 갈라치면 할머니는 키키루 말렸던 까닭이였습니다. 공장 날'삯 일을 다니시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쳐지는 할머니였으니까요.

봉투 바르기, 소독 절 봉하기, 삯빨래질 고기밸 따기며 고기 저림질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보다는 갑절 뼈가 쑤셔 나고 멍이 드는 고생이시면서도 할머닌 가장 안심이 되는상 싶어 나를 꽃장사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이른 봄 방천에 선 버들강아지, 개나리, 산에 올라 진달래, 함박꽃, 그러나 오월이 지나면 한 사오리나 잘 되게 수성천을 거슬러 올라 가서 고운 란초를 꺾으신다, 참나리를 꺾으신다, 그다음엔 정말 정다웁게 피여 주는 들국화로 할머니는 별의별 아름다운 들꽃을 다 꺾어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조그만 쇠굴레미가 달린 손발구 우에 물통을 올려 놓습니다. 물통 하나 가득 누가 보든지 정말 사구 싶게 가진 꽃들을 눈부신 색갈이 돋혀나게 잠구어 싣고 거리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철을 따라 피는 들꽃을 꺾으러 가시면 철을 따라 우는 새처럼 꽃 옆에 주저 앉아 한탄하시였습니다. 왜놈들이 전쟁을 하는 통에 아버지는 《보국대》로 떠나신 길로 소식이 없지, 어머니는 무덤 속에 계시지, 다시 돌아 온다든가, 다시 살아 난다든가, 어쩌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두 할머니는 간 봄은 다시 와서 졌던 꽃은 두던에 도루 피는데,

《너희들은 한번 가니 그만이구나…》 하시며 막 가슴을 허비였습니다. 그러시며 할머니는 진달래 곁에서도 울었고 란초꽃 옆에서도 우셨습니다. 그렇게 꺾은 꽃을 나는 물통에 잠궈 가지고 관거리로 팔러 가는 것이였습니다.

《꽃이요——꽃》.

하고 어서 꽃들을 사라고, 그래서 꽃을 팔 때면 꽃묶음을 들어 주며 나는 저절로 생각합니다. 요 꽃은 할머니가 우시며 꺾은 꽃이구나, 요 꽃은 어머니 말씀을 하며 꺾은 거구 또 요걸 꺾으실 땐 내 등을 뚝뚝 두드려 주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할머니는 하셨지—하고 내게는 모두 그렇게 생각되는 꽃묶음들이였습니다.

그런데두 왜놈들은 이건 들꽃이라고 값싸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돈푼 있는 집 애들이 겉으로만 알롱달롱 옷 치장이나 하듯 온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밭에서 밑천을 들여 자래운 꽃이면 몰라도 들꽃은 꽃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하긴 들꽃도 그럭저럭 사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색갈이 유난스런 나리꽃이나 란초꽃에는 손이 가도 하필 들국화 묶음은 왜그런지 이리 밀어 버리고 저리 제쳐 놓으며 이것도 국화냐는 투로 하찮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꽃은 어째서 아름다우며 어떤 꽃이 꽃맛이 난다는 걸 정말은 모르는 치들이였습니다.

들국화가 어째서 나쁘답니까? 내가 할머니와 들꽃을 꺾으러 나가면 온 들판 하나 뭇별처럼 깔려 바람에 휘갈려 춤추며 으슬대며 나를 먼저 좋아하는 꽃이 들국화입니다. 나도 좋아서 달음질을 치며 소리를 지르다간 풀밭에 군드러져 혼자서 뒤넘이를 칩니다. 그러다간 그대로 누운 채 먼 하늘에 송이져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을, 또 우리는 왜 가난하게만 사는가—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어디선가 고요하게도 나를 어루만져 주는 듯 꽃향기가 풍겨옵니다. 그래 고개를 들면 바로 머리맡에 떨기떨기 피여 번진 들국화 송이들이 흔들립니다. 그렇게도 연한 보라 빛인가 하면 분홍도 건너가고 그렇게도 연한 분홍인가 하면 보라빛도 건너간 그 들국화 송이들이 어딘지 내게는 어린 누이 동생들처럼 나를 보며 반기여 줍니다. 그렇다고 온실에서 자란 꽃처럼 조금만 바람 간수나 잘못 해서 시드는 꽃인 줄 압니까? 모진 바람에 살'대 같이 퍼부어 내리는 소낙비 속에서도 오히려 더 생생하니 휘갈려 술렁대며 온 들판에 넘쳐 나는 꽃이 들국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이 들꽃을 꽃답게 여기잖는건 그건 다 조선 땅에 피는 꽃이래서 그러는 거라구 그래서·그 중에서도 들국화를 하찮게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더구나 들국화를 사랑하며 들국화를 편들고 싶어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도 꽃맛을 모르는 놈들이 꽃같지 않다느니, 값을 깎자느니, 또 어떤 때는 더뻑 꽃묶음만 가져 가면서 내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돈은 래일 받아 가라고 합니다. 이럴때면 꽃을 꺾어 오신 할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왜놈들은 마구 대수롭잖게 없수이 여기는 것만 같애 나는 팔지 않으려고 듭니다만 오히려 제놈들이 을러대며 나를 쫓다싶이 하는 것이였습니다.

《에이 네놈들 아님 팔데가 없어서 그런줄 아니…》하고 차라리 조선 사람들에게나 실속 있게 팔고 싶지만 그러나 내남없이 가난하기만 한 조선 사람들입니다. 거의나 다 꽃을 산다는 것은 조련치가 않는 살림살이였습니다. 그래서 겨우나 꽃을 팔고 돌아 오는 길에 떨어진 꽃'잎이며 이파리들이 떠 있는 물통을 기울여 쏟아 버릴 때면 가슴 하나 가득 치받쳐 오르는 것은 언제나 슬프고도 분한 생각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 오듯마듯 나는 할머니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날날이 합니다. 그래야만 속이 후련하거든요. 내 말을 귀담아 듣는 할머니는 긴 한숨을 지으며 먼 하늘로 젖은 눈을 슴뻑거리시였습니다.

《눈에 흙 들기 전에야…》.

이러시며 자나 깨나 마음 티인 날이 없었던 할머니에게 나는 엄청나게도 기쁜 소식을 하루는 전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손발구를 몰아 형무소 철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외상으로 준 꽃값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아 래일이나 오나》.

《이눔아 모래나 와, 하문 돈이나 준다》.

나를 어린애로만 얕보고 형무소 간수 녀석들은 이렇게 울러대지만 나도 끈지게 찾아 가서 성화를 더려 대는 판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이고 같은 말로 꽃값을 물려고는 하지 않는 놈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큰 철대문이 자우편으로 짝 열려졌는 데 붉은 저고리에 붉은 바지를 껑충하게 받쳐 입은 《죄수》들이 둘씩 짝을 지어 목도로 흙을 날라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방공호나 만드나?》.

절그럭절그럭 쇠사슬 소리를 내며 한패 두패 대문 안으로 들어 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누군지 나를 뚫어지게 돌아다 보며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자 나는 얼'결에 큰 소리를 칠번 했습니다.

《아버지다!》.

온 몸이 화끈 더워 오르는 나는 간신히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보국대〉로 끌려간 아버진데 어쩌된 일인가, 감옥에 있다니?》.

나는 일없이 꽃을 매만져보며 또 물도 끼얹어 주며 다시 아버지가 나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니염니염 들어가기만 하고 종내 아버지는 되돌아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래 간수놈들에겐 꽃값을 채근할 것도, 나머지 꽃을 팔 념도 뒤'전으로 땀에 물주머니가 되여 할머니에게 달려 왔던 것입니다.

오래 잠들었던 힘이 무슨 꿈에서 깨여나 눈을 부비며 일어나는 눈초리로 할머니는 내 무릎을 끄집어 당기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죽지 않구 살았댔구나 응?》.

나는 크게 고개만 끄덕이였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나는 벌써 목이 메여 왔던 것입니다.

왜놈들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시원치가 않은 상 싶고 무슨 큰 변이 당장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판에 어떻게 꽃장산들 잘 되겠어요. 할머니와 나는 어수선한 마음이면서도 그러나 고생이 고생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운이 북솟아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산'벌로 쉬임 없이 꽃을 꺾으러 돌아쳤고 나는 나대로 물통에 꽃묶음을 잠구어 싣고 뻔질낳게 관거리로 꽃장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지음에 속심은 꽃을 팔러 간다는 건 형무소 앞으로 가는 일이며 형무소 앞으로 간다는건 한번이라도 더 아버지와 만나 눈짜검으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까닭이였습니다.

《〈보국대〉로 가서 죽었는가 했던데 모진 목숨이 거기서 살아 있다니 원 정말같지가 않구나》.

어느날 할머니는 나와 함께 손발구를 몰고 아버지를 먼 눈으로라도 보려고 형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간수놈들에게 이상스레 눈치를 채일가 꺼려 나만 파수막 앞으로 가서 새꽃을 사라느니 외상 값을 달라느니 질득이를 부리며 시간을 느루잡는새 할머니는 멀리지간이 뜨게 숨어서서 그 큰 철대문이 짝 열리기만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문은 조만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에도 번번이 헛걸음으로 돌아 오군 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나도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헛탕만 치고 돌아 왔습니다. 가로 여섯개 내리 일곱개, 또 가로 여섯개 내리 일곱개, 매 철판마다 힘주어 박아친 쇠못 그루까지 눈에 익혀진 그 무거운 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형무소 앞 고개'길을 나도 매일같이 맥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나 나나 차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시다가도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니지, 초롱같은 네 눈이 어길 수가 있겠니. 그럴 수야 없지! 너의 아버지야 본시부터 밸머리가 곧아서 아무려하니 순순히야 〈보국대〉로 갈상 싶으냐? 엇서 나가면 끝에 또 무슨 밸풀이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할머니와 내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 동안에 세상은 점점 더 달라지는 상 싶었습니다. 쏘련 군대가 금방 상륙해 온다고, 이제 일본 놈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 입가진 조선 사람은 어느 누구나 벌써 내통이 있었는 듯이 말들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얘야 따기 좀 말하렴, 정말 아버지던?》

《글쎄 아버지던데 뭐…》

하고 이렇게 내가 어름어름하는 대답에 할머니는 울'상이 되여 안타까와했습니다.

《얘야 또 좀 가 보아 다오, 이러구 있을 때냐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에 또 꽃묶음을 실은 손발구를 몰고 관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왜놈들은 길이 메여지게 개미떼처럼 꼬리를 맞물고 달아나는 것이였습니다. 내 손발구에 짐꾸레미가 부딪치여 허둥대는 놈으로, 나를 금시라도 줴지를듯이 피가 선 눈으로 쏘아보며 가는 놈으로, 나는 이리 떠밀리우고 저리 피하며 마침내 형무소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파수막 앞에서는 간수놈들이 들끓어대며 당장이라도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을 몰아 죽일 상 싶은 기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에 덴 짐승들처럼 벌써 한쪽으로는 무리를 지어 달아나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진 곳에 치우쳐 숨어서서 침을 삼키며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겁에 질렸습니다. 갑자기 항구 둘레를 온통 에워싸고 콩볶듯이 일어나는 요란한 총소리에 나는 펄썩허니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마구 떨었습니다. 해가 어디메쯤 떠 있는지,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달려 오는지, 또 간수놈들은 어디로 슴세여 도망쳤는지, 그리고 얼마나한 기간이 흘러 갔는지…요란한 발동기의 울림이 땅크가 다가 오는 소린 줄도 모른채 정신을 잃고 있던 나는 소스라쳐 달려 나갔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붉은 벽돌 담장 넘어에서, 나는 나서 처음 우리 조선 말로 웨치는 그렇게도 높은 만세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맞받아 형무소의 그 큰 철대문을 박차 열어재낀 땅크에서 내리 뛰며 만세들을 불러주는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쏘련 군대요!》.

《쏘련 군대들이요》.

저마다 소리소리 치며 잡시간에 어디서들 몰려드는지 형무소 앞은 조선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옳아, 저 이들이 쏘련 군대군요!》.

나도 정신 없이 달려갔습니다. 형무소 대문밖으론 그 오랜 감옥'살이에서 풀리여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마구잡이로 쏘련 군대들과 얼싸 안고 돌아쳤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얼'결에서 버렸습니

다. 그러자 나는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며 다시 달려갔습니다. 어느 쏘련 군대와 얼싸 안고 입을 맞추며 덩실덩실 뛰뛰듯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에 질척한 아버지의 얼굴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두팔로 나를 힘껏 껴안아 올렸습니다. 땀과 먼지에 어지려워진 쏘련 군대 아저씨는 또 아버지와 나를 한꺼번에 붙안고 소리소리 만세를 불러 주었습니다.

나는 문뜩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팔에서 뛰여 내리자 줄달음을 쳤습니다. 바로 승리한 땅크처럼 나도 꽃묶음을 실은 손발구를 요란하게 몰고 땅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물통에서 나는 크게 단을 지은 들국화 묶음을 번쩍 쳐들어 쏘련 군대 아저씨 가슴에 마구 안겼습니다.

《호호호호호…》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꽃묶음을 가슴에 붙안은 쏘련 군대 아저씨는 꽃묶음에 얼굴을 묻었다가 나더니 나를 덥석 안아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이 흠뻑하니 젖은 들국화 묶음을 높이 쳐들고 무어라고 소리소리 웨치며 우리 나라 산과 들을 향하여 흔들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도 아름다운 꽃이 핀 당신네 나라는 영원히 당신네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 나오신 어느 분인가 목이 쉰 소리나마 쨍쨍하게 쏘련 군대 아저씨의 말을 이렇게 통역해 주었을 때 또 수풀처럼 손들이 일어나며 모두들 하늘이 무너질듯 고래고래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렇게도 좋아하시는 꽃을 왜 놈들은 미워했어요!》.

《그놈들은 꽃이 무언지 알게 뭐냐 정말루 아름다운게 무언지 모르는 놈들이란다!》.

내 말에 이렇게 대'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누렇게 뜬 얼굴과 그리고 붉은 별 모자를 재껴 쓴 쏘련 군대 아저씨를 번갈아 보며, 나서 처음으로 나도 이제야 들국화처럼 호사하는 것만 같애 마구 춤을 추고 싶고 가슴이 벅차 올라서 넓고 넓은 하늘이 머리 우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1957년 7월 4일)

동요

내기 한다지

원 석 파

밤마다 하늘에선
　별들이 반짝 반짝!
우리 마을 거리에선
　전등'불이 반짝 반짝!
누가 누가 더 많으냐
　내기한다지.

밤마다 하늘에선
　별들이 반짝 반짝!
우리 마을 거리에선
　전등'불이 반짝 반짝!
누가 누가 더 밝으냐
　내기한다지.

별아 별아 내기에서
　손을 들어라.
우리 거린 날마다
　새집 서고 공장 서고,
전등'불이 새끼를
　자꾸 친단다.

좋은 약속

우리 소년단원들은 도서관에 많이 찾아 가서 책을 읽습니다. 또 많이 빌려다 봅니다.

우리 학교 7분단 차 국천 동무는 제일 많이 읽는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금년에만 하여도 6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서는 자기 일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일기 책을 펼쳐 보면 《혁명의 꽃봉오리》《도끼 장군》《강 감찬 장군》《리 순신 장군》《시내'물》…이렇게 읽은 책 이름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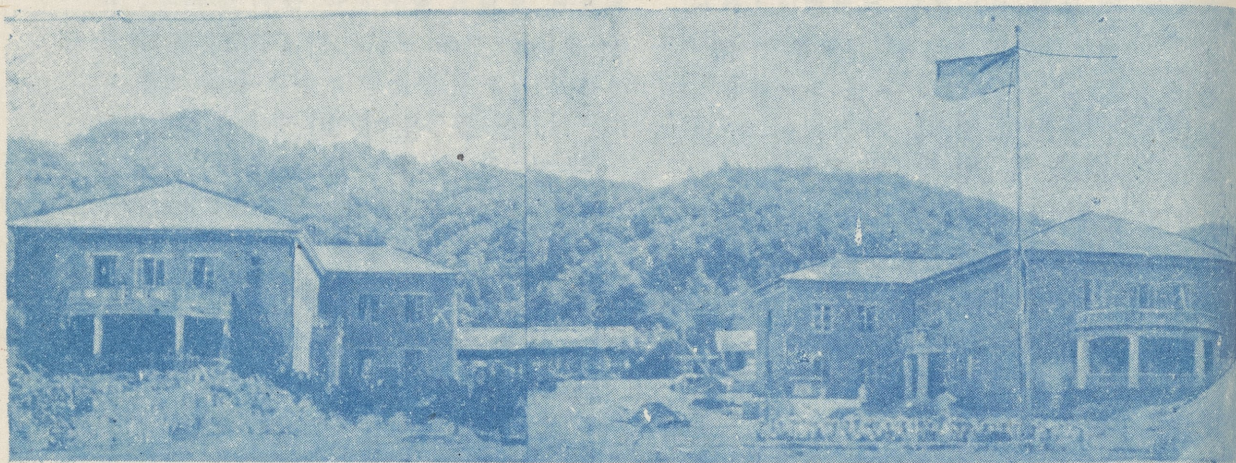
차 국천 동무네 집에서는 온 집안이 다 도서관 책을 읽습니다. 견직 공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누나와 형님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차 국천 동무의 모범을 따라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90권의 책을 읽었으며 나의 동생도 5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책을 읽자고 합니다. 그래서 권 세랑, 한 일주, 리 영수 동무들도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이번 여름 방학에 책을 더 많이 읽자고 좋은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 인민 학교
제5 분단 신 송 무

야영소들에서

새로 선 석암 중앙 소년단원 야영소

나라의 배려

우리들은 여름을 흔히 즐거운 여름이라고 부른다.

참으로 여름은 즐겁다. 여름에는 새학년도를 기다리면서 맞는 긴 방학이 있다. 이 여름 방학의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소년단원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의 한때가 바로 야영 생활이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1955년 여름에 함남 속후에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를 건설하여 해마다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뽑히여 온 소년단원들을 맞아 들여 야영 생활을 시키고 있다.

금년에는 평남 석암에 또 하나의 새로운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를 건설하여 소년단원들을 맞았다.

금년 역시 각 도와 각 시, 군들에서도 나라의 배려로 소년단원들의 도, 시, 군 야영소들을 경치 좋은 곳에 정하고 야영을 시작하였다.

이밖에 각 학교들에서도 야영 생활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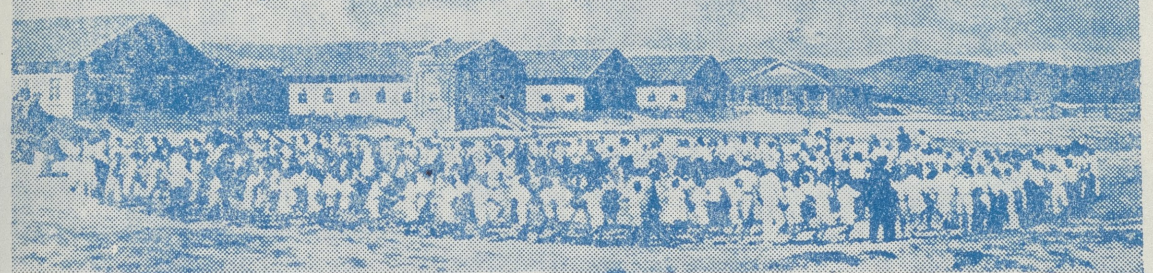
중앙 및 도, 시, 군 야영소에서만도 금년에 4만 2백 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야영 생활에 참가한다.

오늘 이처럼 행복한 생활과 밝은 앞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배려를 베푸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소년단원들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평양시 동구역 야영 (평남 순안군 구서리에서)

개성 지구 야영(박연 폭포에서)

◇박 정 렬◇ 김 창 규 촬영

상 봉

다박솔 사이로《새 꽃봉오리들을 환영한다》라는 프랑가드가 바람에 펄럭인다. 뿡뿡 트럭 소리가 나자 얼마 전에 온듯한 소년단원들이 막 달려 나오며 환성을 지른다. 트럭에서 내린 소년단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서로 기뻐 날뛴다.

《야! 이게 김 대호 동무 아니야》.

《응, 광세 동무! 또 성자 동무두!》.

서로 얼싸 안고 뱅뱅 돈다. 이 광경을 본 동무들은《먼 곳에서 모여 온 동무들인데 두……》하고 저으기 놀랜다.

참 뜻하지 않은 상봉이다. 이들 셋은 지난해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축전에 대표로 참가하여 서로 친해진 사이다.

《그래 또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왔어?》, 평양 제11 중학교 대 위원장인 김 광세 동무는 대호 동무의 배낭을 받아 들며 이렇게 묻는다.

대호 동무는 어릴적 소꿉놀이 동무를 몇해만에 만났을 때처럼 그저 기뻐서 싱글벙글할 뿐이다.

갈매기떼 유유히 감도는 동해바다! 붉은 해당화 향기로운 모래산 기슭, 낮은 둔덕에 넓고 푸른 바다를 한 아름에 안고 거연히 선 야영소! 화려한 구락부, 아담한 침동, 오락실, 도서실, 그 어느 하나 하나가 소년단원들을 감탄시키지 않는 것이란 없다.

백사장 넓은 터에서 300명이 한데 모여 즐기는 군중 무도회는 피곤조차 잊게 한다.

곧 야영생들은 분단과 대를 조직하고 열성자들을 선거한다. 먼저 이들은 서로 낯을 익히며 친숙해질 수 있는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자기의 고향과 학교의 자랑을 이야기하며 소년단 생활에서 경험도 나눈다.

황혼이 깃들 무렵 바다'가를 거닐며 광호와 대호, 성자 동무는 모임에서 채 다 못한 자기 학교의 자랑을 신이나 이야기한다. 자강도 자성 고중에서 온 성자 동무는 독서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평남 애원 중학교에서 온 대호 동무는 실습지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광세 동무는 우리 민주 수도의 자랑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 두번 다시 만나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자기들의 즐거운 상봉이 어린이들을 위해 항상 배려를 돌려 주는 인민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안다.

《애 남쪽 끝인 부산과 제주도에서까지 우리 동무들이 모인다면 더 재미 있겠지》.

《거야 물론이지 뭐, 그애들도 우리들 틈에 끼워 제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 가며 자기네 고향의 이야기를 신이나 할테니까》. 세 동무는 한 나라 한 땅에서 살면서도 서로 이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불쌍한 남반부 동무들을 생각하며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눈뿌리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가는 곳마다에 웃음 꽃

잔잔한 물'결 우에 금빛 해'살 나래치는 아침 6시!

류창한 라팔 소리와 함께 또 다시 즐거운 야영의 하루가 시작된다.

게양대에선 소년단원들의 희망을 담은 붉은 색 푸른 색 바탕의 야영기가 휘날린다. 언제나 일과표에 의하여 한 사람 같이

움직이는 야영생들은 분단 활동을 알리는 라팔 소리를 따라 달음질쳐 모인다.

자기들의 계획에 의하여 분단별로 행군, 오락회, 뽀드 놀이, 해수욕, 체육가 모임, 재미있는 유희, 이야기 모임들을 가진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해 바다'가의 명승지인 이곳 속후의 민요《돈돌나리》와 모래산의 전설을 듣는 것도 흥미있다.

날마다 점심은 별맛이다. 물론 맛 있는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 놓은 밥상이 이들을 기다리는 데도 있겠지만 명랑하게 뛰놀며 마음껏 즐기는 데도 있으리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고요한 시간이 온다. 춤추며 노래하던 즐거움도 어느덧 잊은채 꽃봉오리들은 침대 우에서 고이 잠든다. 잠에서 깨기도 바쁘게 이번에는 과자를 받는다. 하나, 둘 과자를 집어 먹으며 이야기에 꽃피는 간식 시간도 좋지만 저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넓히며 몸을 튼튼히 다져 나가기 위한 크루쇼크 활동 시간은 더욱 즐겁다.

자기의 취미에 따라 문학, 무용, 음악, 미술, 체육, 공작 기술 크루쇼크 등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자기의 솜씨를 자랑하려는 결심도 크다.

조 규상 동무는 야영 기간에 동식물 크루쇼크에서 배우며 정성껏 만든 동식물 표본들을 남반부 동무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다고 한다.

7월 16일엔 이들도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의 통치 밑에서 헐벗고 굶주려 쓰러져가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힘껏 돕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 모임에서 원쑤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최 정진 동무와 민 정자 동무는 우리의 원쑤인 미제는 우리 나라 남쪽 땅에서 하루 바삐 물러 가야 한다고 웨치면서 자기의 불같이 끓어 오르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뜨거운 해'살이 내려 쬐는 정오면 발가숭이가 된 꼬마들이 백사장을 뒹굴며 풍덩풍덩 물 속에 뛰어 들어 헤염도 친다. 불과 며칠이 안 되나 구리'빛으로 탄 이들의 얼굴과 몸은 한결 튼튼해 보인다.

저녁마다 유쾌한 오락회에서는 분단별 경쟁이 벌어진다.

서로 다투며 자기의 솜씨를 자랑하는 이 시간은 자못 흥성거린다.

평양에서 온 조 방자, 조 광석 동무의 노래와 시 랑송엔 누구나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된다. 참으로 귀여운 형제다. 최우등생이며 모범 소년단원인 이들 형제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나 이렇게 중앙 야영소에 함께 온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신창으로의 행군, 작가와의 상봉, 행복한 항행, 채집의 날들을 가지게 된다.

특히 푸른 파도를 헤쳐 나가는 뽀드 놀이와 넓은 수영장에서의 수영은 이들을 가장 즐겁게 하며 오래도록 인상에 남게 될 것이다.

고향에 부치는 편지들

날마다 우체통에는 편지가 가득 차군한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과 동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행복한 야영의 나날을 어떻게 하면 다 알릴 수 있으랴! 날마다 써도 끝이 없다.

이처럼 오래'동안 멀리 집을 떠나 온 것이 처음인 듯한 어떤 동무들은 편지를 쓰는 것을 몹시 자랑으로 여기기도 한다.

7분단 동무들도 저마다 고향에 소식을 전하느라고 정성껏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별안간 방안은 어스선해진다.

황남도 삼천군 금천 인민 학교에서 온 연화 동무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때문이다. 그는 이모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새삼스럽게 원쑤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웠던 것이다.

고아로 자라면서도 즐거운 야영 생활까지 할 수 있는 행복! 다만 이 행복을 이모에게만 알리기는 너무도 섭섭했다.

《행복한 야영 생활의 소식이 다 담겼는지 모르겠어요》하고 신의주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오 혜숙 동무가 수집어 하며 보이는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꽃무늬 아롱진 요들이 갖춰진 폭신폭신한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 야영 생활은 내가 생각해 오던 것보다도 몇배나 더 행복해요. 야영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이처럼 내가 행복해 하는 편지를 읽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가요. 어머니! 난 잘 알고 있어요. 장차 조국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기 위해 열심히 배워 나간다는 것은 곧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위해 원쑤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이어 나가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활활 타 올라라, 우등'불아!

《철썩! 쏴!》파도 소리 요란한데 시원한 바다'바람이 안겨 오는 넓은 백사장 곳곳에서는 활활 우등'불이 타 오른다.

작별의 우등'불! 애석한 순간에도 이들은 광세 동무나 성자, 대호 동무들처럼 또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서로 믿는다. 다음 번에는 민주 수도 평양에서, 어느 전문, 대학 또는 로력 혁신자가 되여…. 소원이면 무엇이나 이룰 수 있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용감히 원쑤를 무찌른 우리 부모들이 오늘은 사회주의 꽃동산을 이루어 가는 인민 경제 계획 넘쳐넘쳐 하고 있거늘 사랑스런 꽃봉오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베풀어 주지 못하랴!

타 올라라! 우등'불아! 넓은 이들의 앞길을 밝게밝게 비치라. 이 시각에도 잊지 못하는 이들의 갸륵한 마음들을…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의 벗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자!》.

《미제는 우리 땅에서 물러 가라!》일시에 이 웨침은 밤 하늘을 뒤흔든다.

우등'불을 둘러싸고 이들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한다. 행복한 야영의 나날을 추억하며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을 베풀어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선 소년단 중앙 속후 야영소에서)
1957년 7월

위대한 은공

지금으로부터 열두해 전에 위대한 쏘련 인민은 쏘베트 군대를 보내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 땅에서 몰아 내였다.

조선 인민 앞에는 밝은 앞길이 열려졌다.

그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행복된 새 생활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헐벗고 굶주리고 억눌렸던 인민들 특히 로동자 농민들이 수천년의 력사에 처음으로 인민 위원회를 세우고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로동자들은 인민의 공장에서 행복한 로동을 하게 되였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생활의 주인이 되는 것을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도 도와 주었다. 기술을 배우지 못한 로동자들에게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공장을 복구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조국을 전쟁의 불'길 속에 몰아 넣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어려운 전쟁 시기에도 쏘련 인민은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이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는 힘찬 목소리가 쏘련 인민들 속에서 련참 울려 나왔으며 밀가루 5만톤을 보내 주는 등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성의껏 도와 주었다.

조국 해방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뒤에는 미제놈들에게 파괴 당한 도시와 농촌, 어촌을 복구 건설하는데 10억 루블리의 원조를 주었고 수많은 기술자들도 보내여 주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복구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쏘련 인민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수많은 원조를 주고 있다.

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쏘련 인민의 모범을 따라 행복한 생활을 이룩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 인민의 해방과 건설에 준 쏘련 인민의 은공에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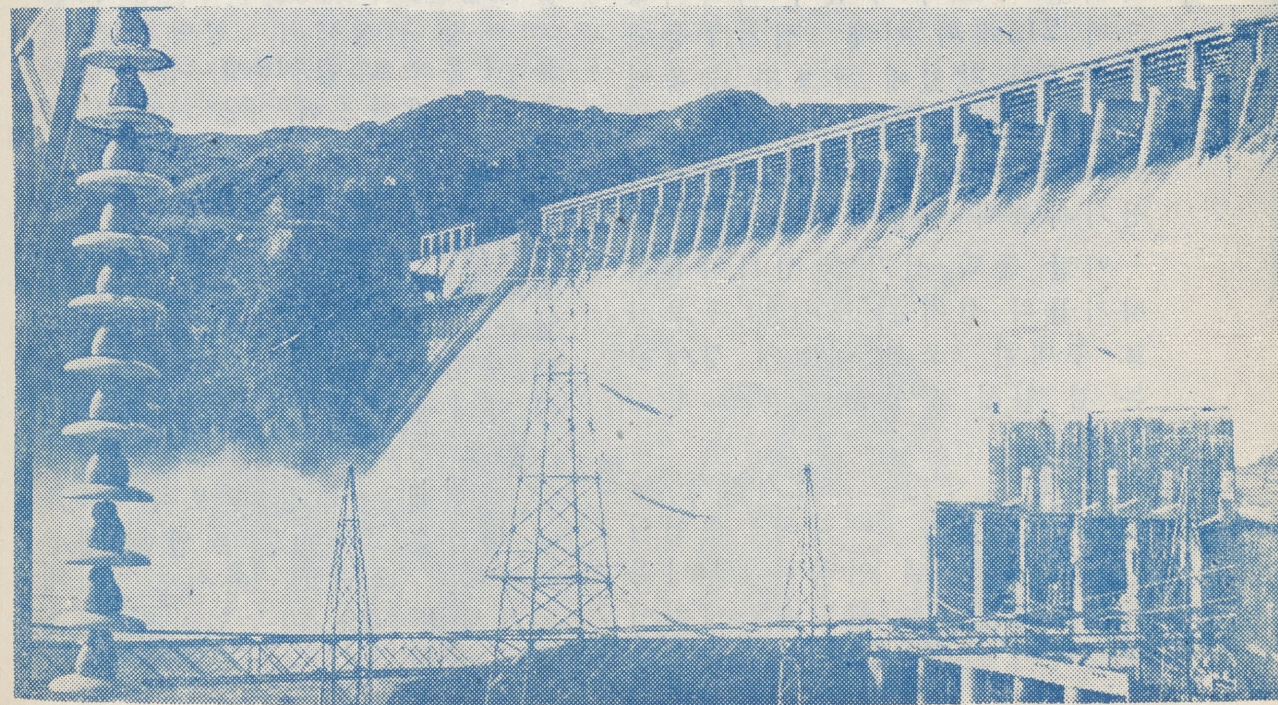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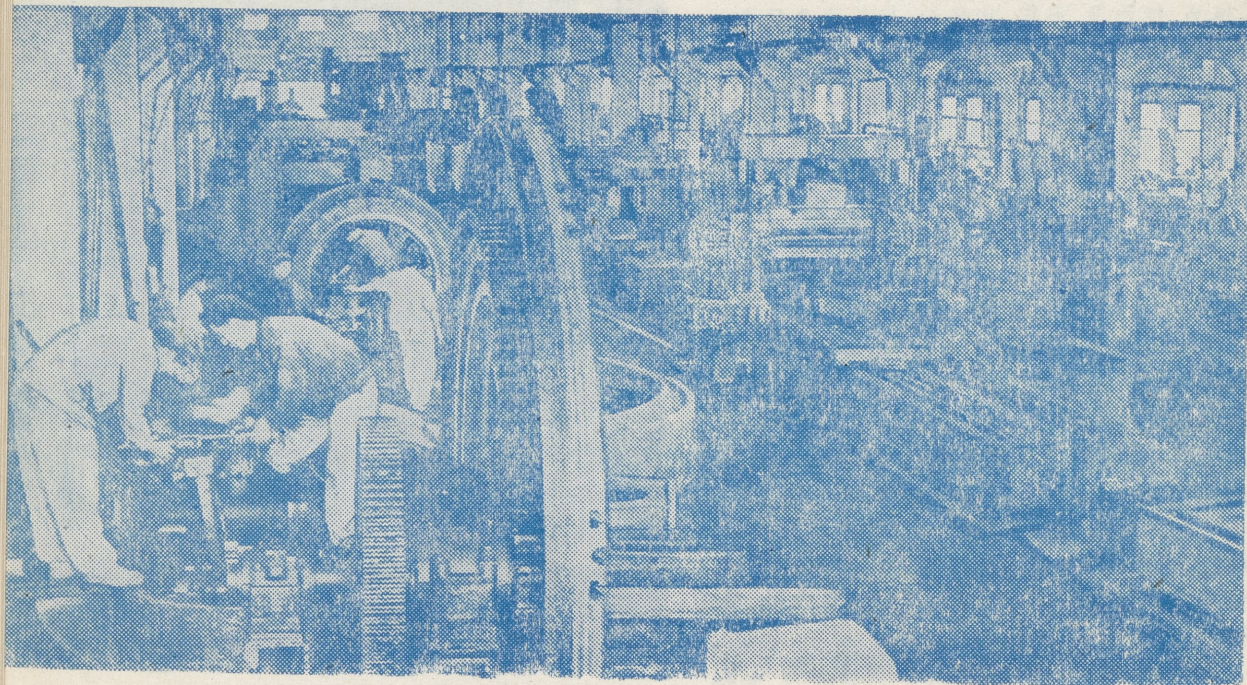
◇ 평양 모란봉에 세워진 해방탑 ◇↑

↑◇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입성하는 쏘련 군대 ◇

↓◇ 청진 감옥에서 애국자를 해방시킨 쏘련 군대 ◇

→◇《一九四五년 八월 一三일청진에 상륙한 쏘련 군대 병사들이 이곳에 첫 기빨을 꽂았다》◇

◇ 수풍 발전소는 쏘련 인민의 원조로 더욱 훌륭히 복구 건설되였다. ◇ ↓

행복한 우리 나라 인민의 나라

↑ 룡성 기계공장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은 가까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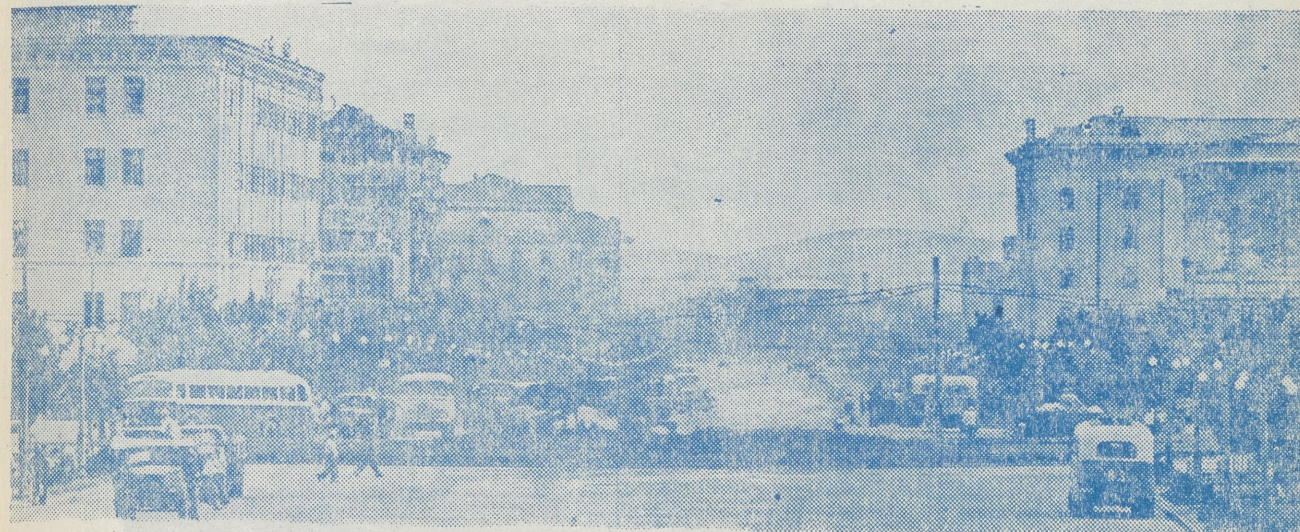
7월 14일부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이 시작되였으며 215개의 전체 선거구들에서는 7월 28일에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지난 8월 2일부터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자들과 상봉을 하고 있다.

이날 문덕 선거구 선거자들은 자기들의 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한 조선 인민이 경애하는 김 일성 수상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선거자들 앞에서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후 10여년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빛나는 전망에 대하여 연설하시였다.

이 연설을 전체 인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조선 인민은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렸다. 3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침략자 미제를 두목으로 한 16개 나라 침략군을 물리쳤으며 재'더미만 남았던 터전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기간에 320여개소의 큰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신설되였으며 공업은 해방전의 2배로 발전하였다. 옷감은 전쟁전의 8배, 해방전에 비해서는 66배를 짜내고 있다.

농촌 경리도 급속히 발전되였다. 작년에는 해방 전보다 19%나 더많은 278만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전체 농가의 85,5%가 농업 협동 조합에 들었다.

↑ 오늘의 평양

이렇듯 우리 조국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꽃피고 있다.

인민들은 이것이 오직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더욱 큰 행복으로 빛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선거자들은 한결 같이 자기들이 추천한 훌륭한 애국자들인 대의원 후보자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그를 선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인민들은 남북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원쑤들의 침략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더욱 강화하며 그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의 위력을 시위하게 될 것이다.

망칙한 남조선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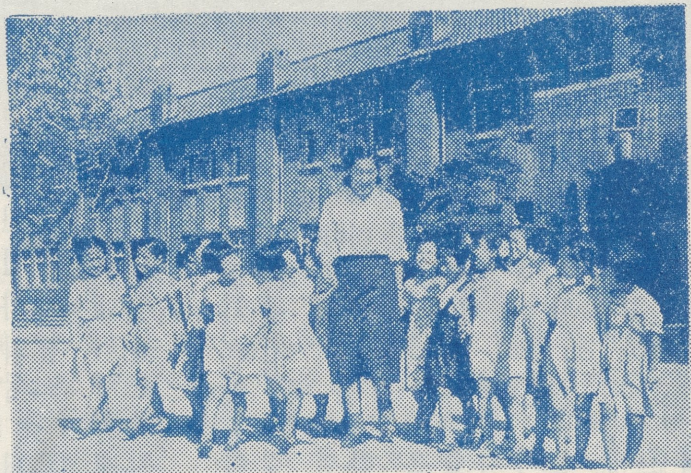
◇후보자가 체포된다

리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는 경찰이 체포한다.

◇무테기 투표

리승만은 선거함 안에다 미리 선거표를 넣으며 또 테로단을 시켜 무데기 투표를 시키고 있다.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개 공사를 하여 74%의 논에서는 물걱정없이 벼농사한다.

나이만 차면 누구나 인민학교에 간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초중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 된다. →

허수아비 정부

미제의 등에 업힌 리 승만 정부

미제가 없으면 하루도 리 승만 정부는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리승만은 미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미제의 강도질

남조선에서 미제는 앞잡이 리 승만을 내세워 가지고 무슨 조약 무슨 조약을 맺고서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가고 있다.

미제의 대포밥

리 승만은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다.

영환 그림

1945년 8월 조선을 해방시키는 전투에 참가했던 회상기

조선의 8월을 회상하며

◇웨·똘쓰찌끄브◇

친애하는 조선 소년단원들! 잡지 《소년단》 편집부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1945년 8월을 회상하며 일본 제국주의 쇠사슬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는 전투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 부탁을 기꺼이 받고 이 글을 보냅니다.

그 때 나는 쏘련 해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쏘련 인민의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우리 해군 부대는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 우리들은 조선 해방 전투에 참가할 영예를 지니게 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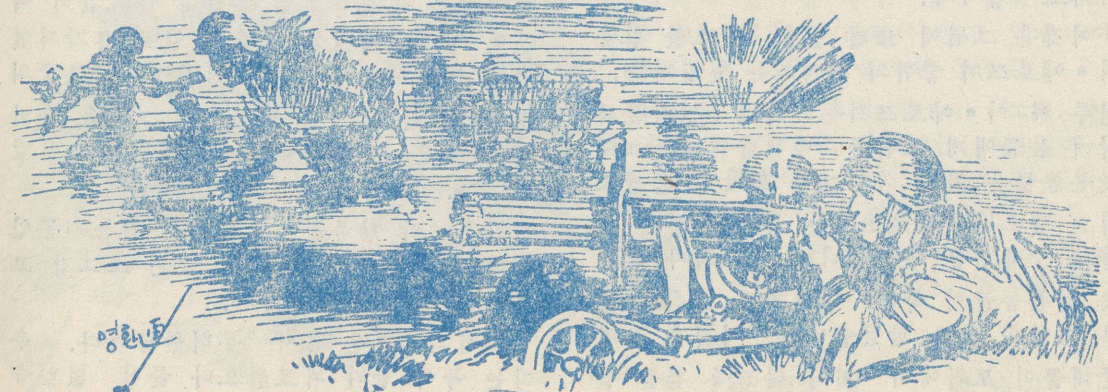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났으나 나는 1945년 8월의 흐리터분한 저녁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부대는 쏘련 영웅인 빅또르 레오노브가 지휘하는 수뢰정을 타고 울라지워쓰또크 만으로부터 조선 동해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밤새도록 갔습니다. 바다에는 폭풍이 일어 배는 나무'잎처럼 물'결에 뒤흔들리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들은 곤난을 박차면서 배를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강도들의 눌림 밑에서 허덕이는 조선 인민을 구원하러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월 9일 새벽녘에 우리들은 조선의 항구 도시인 웅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쏘련 해군들은 만의 남쪽으로부터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군대의 주력 부대는 저녁부터 웅기를 버리고 청진으로 퇴각했기 때문에 전투는 잠시 동안 벌어졌을 뿐입니다.

시내를 해방한 후 나는 웅기 남쪽의 정찰을 위임 받은 해군 그루빠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도시 남쪽으로 오자 거리와 철로'길 우에는 부상 당한 수많은 남자와 녀자와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밤 일본 장갑 렬차가 시내에서 퇴각하면서 철로'길 부근과 거리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부닥치는 대로 사격했던 것입니다. 대낮쯤 해서 쏘련 기계화 부대가 웅기로 들어 왔는데 우리의 소식을 받고 군의 일'군들은 달려 와서 부상 당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녘에 우리 부대는 벌써 라진항에 상륙하여 곧 시내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라진항을 떠나 울라지워쓰또크로 돌아 갈 때 우리의 한 수뢰정은 일본군들이 부설해 놓은 기뢰에 부딪쳤습니다. 기뢰가 폭발할 때 3명의 우리 동지들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뢰정은 큰 손상을 입지 않았으므로 전 부대와 함께 무사히 울라지워스또크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간 휴식한 후 우리 부대는 쏘련 태평양 함대의 다른 부대들과 함께 청진 상륙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청진 해방을 위한 전투는 3주야 이상이나 계속되

였습니다. 쏘련 해군 부대들은 일본 정예 부대와 여러번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본놈들은 쫓겨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진 시민들은 청진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쏘련 해군 부대를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도 전투의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줄곧 우리 부대와 함께 있은 김 동무라는 조선 소년이 생각납니다. 그 소년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탄약, 식량, 및 음료수를 운반하였으며 부상자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김 동무는 우리 부대와 함께 남쪽으로 진격하여 원산 해방 전투에까지 참가했습니다.

청진시를 해방한 후 우리 부대는 《근위대》 칭호를 받았으며, 시 해방 전투에 참가한 수많은 쏘련 해군들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 빅또르 레오노브는 쏘련 2중 영웅 칭호를 받았지요.

나는 청진에서 있은 일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뒤에 쏘련 영웅 칭호를 받은 이•야로쯔끼 중위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전투 때 이•야로쯔끼는 다른 전사들과 함께 놈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놈들은 다가 와 그를 포로로 붙잡으려고 했으나 야로쯔끼는 놈들을 향해 반땅크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몇명의 일본놈들이 죽어 넘어지고 남은 놈들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쏘련 군대들이 포위에서 벗어 나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류탄이 폭발할 때 야로쯔끼는 그만 중상을 입어 전투장에 그냥 남게 되였습니다.

해방된 청진에서는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되였습니다. 하루는 쏘련군 시 경무관한테로 늙은 로인 한 분이 찾아 오더니 자기 집에 부상 당한 쏘련 군관이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무관은 늙은이와 함께 그의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미 건강이 회복된 야로쯔끼 군관이 있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투를 바라보고 있다가 야로쯔끼가 수류탄 파편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늙은이들은 군관이 아직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업어다가 정성껏 간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늙은이들의 이름을 잊어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다시 청진으로 가 보았는데 그러나 그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만일 자기 도시의 력사를 연구하는 청진시의 소년단원들이 이 기특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할 수가 있다면 그 이들을 쏘련 영웅인 군관 이완 야로쯔끼의 생명을 구원해 준 조선 애국자들로서 등록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후 드디여 원산에 상륙했는데 우리들은 거기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 녘에 상륙 부대들을 태운 수뢰정은 쾌속도로 원산항으로 돌입해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군에게는 뜻밖의 일로 생각되였었을 것입니다. 비록 원산에 일본군의 병력이 1만명 이상 있었으나 그들은 우리가 내놓은 항복문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항복문에 도장을 찍는 동안 우리 부대는 원산 동쪽에 있는 조그만 고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선의 8월은 몹시 무더웠습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 괴로웠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오른쪽 비탈길로 물동이를 인 처녀가 우리한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처녀는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것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흰 밥을 가득 담은 함지를 든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윽고 새로운 동무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원산 시민들은 우리 쏘련 군대의 호송 밑에 일본 병정들의 수천의 대렬들이 비행장에서 병영에서 또는 요새 근방에서 도시 중앙으로 붉은 다층 건물을 향해 줄지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원산시 해방 전투들에서 우리 쏘련 해군들은 42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는 지금 원산시 중앙에 서 있습니다.

해방된 후 조선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행복한 새 생활의 건설에 들어섰습니다. 쏘련 인민의 사심 없는 원조 밑에 조선 인민들은 전쟁전에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평화적 로력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이 저지른 전쟁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나는 다시 몇해 동안 동무네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 소년단원들과 학생들이 농사를 도우며 폐품을 모으며 폐허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3년 봄에 어느날 나는 평양 제 3 녀자 중학교 교장 선생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은 나에게 자기 학교 소년단원들의 절대 다수가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학교의 녀 학생인 윤 인자 동무는 소년단 실에서 나와 만났을 때 조야 꼬스모제만쓰까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교의 소년단원들은 모두 조야의 생애와 공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의 모범을 따를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이 조선에서 제아무리 만행을 다한다 할지라도 놈들은 동무들의 영웅적 인민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들은 정의의 해방 전쟁에서 승리자로 되였으며 거기에서 소년단원들도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무들—조선 소년단원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전후 복구 건설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쏘련의 삐오네르들은 동무들과의 수많은 편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무들의 성과를 기뻐하며 더 큰 성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무들이 쏘련의 삐오네르들과 같이 어른들의 일을 돕고 《찌무르 부대》를 조직하여 전쟁 시기에 전사한 애국 렬사들의 가족을 도와 주는 일들을 기꺼이 읽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조선 소년단원 동무들!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 12주년 기념일과 관련하여 동무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보내며 훌륭한 앞날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동무들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 누나들의 훌륭한 교대자가 되도록 어서 어서 크십시요.

김 원필 역　　림 영환 그림

우리 나라의 자랑

백두산

↑ 희망봉

무두봉

조선 인민의 슬기를 자랑하며 높이 솟은 백두산! 부르면 부를수록 심장이 뛰노는 희망의 봉우리 백두산은 실로 조선 인민의 량심이며 자랑이다.

그러기에 그 이름은 예로부터 조선 인민과 더불어 온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백두산은 사시장철 그 이마에 백설을 떠 이고 있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한다.

백두산을 찾아 가는 사람은 모두 혜산역에 내려 자동차를 타고 력사의 땅 보천보를 지나 180리 무인지경을 달리면 삼지연에 이르고 다시 60리 길을 달려 신무성에 이른다.

거기로부터는 심산 속 오솔'길로 행군을 계속하여 무두봉에 오르게 된다.

무두봉은 해발 1,900고지, 여기에는 아직 도끼 날을 보지 못한 이깔 나무, 분비나무, 가문비 나무 등 아름들이 나무가 마치 바다처럼 밀림의 수해를 이루고 아득히 소백산과 포대산 줄기를 타고 펼쳐 있다.

이 밀림 속에서 바로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들이 조국을 그리며 우등'불도 피웠고 래일의 싸움을 의논도 하시였다.

무두봉에서 약 30리 길을 더 걸어 올라가면 구름도 발 밑을 스쳐 지나는 백두산 절정에 닿는다. 거기에는 이 산의 최고봉 2,744고지인 병사봉과 희망봉 등이 깎아 지른듯 솟아 있고 거기에 련달아 창끝같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는데 그 복판에 두레 30리에 달하는 무연한 천지가 바다처럼 설레인다.

여기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이 맞붙은 듯한 이 절정에서 눈 아래 바라 뵈는 진주 바다와도 같은 천지의 아름다움에 놀랜다.

천지 우측 기슭 약 10리 절벽 밑을 감돌아 가면 천지 동북쪽에 달문이 나타난다. 송화강의 한 상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백두산에서 도로 얼마쯤 내려오면 옛날에 조중 두 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정계비 성터가 있는데 그 곳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10리못 미쳐 백두산 서남록에서 압록강 상류가 시작된다.

이 곳에서 압록강 상류 무연한 초원 지대가 펼쳐진다.

실로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 고원은 눈 모자라는 무연한 밀림 지대이며 초원이며 벌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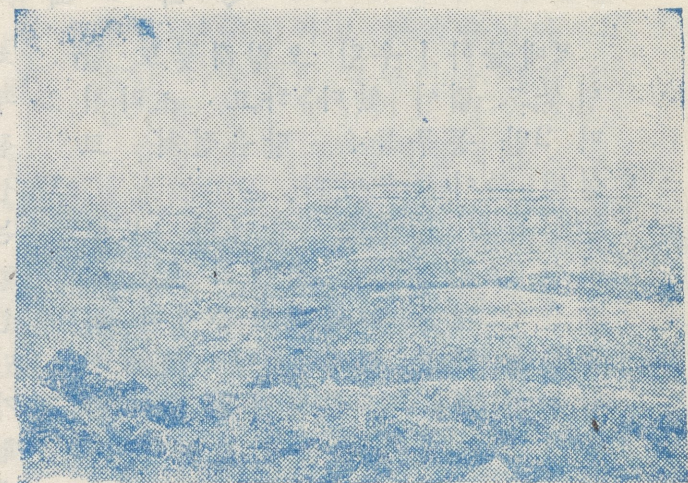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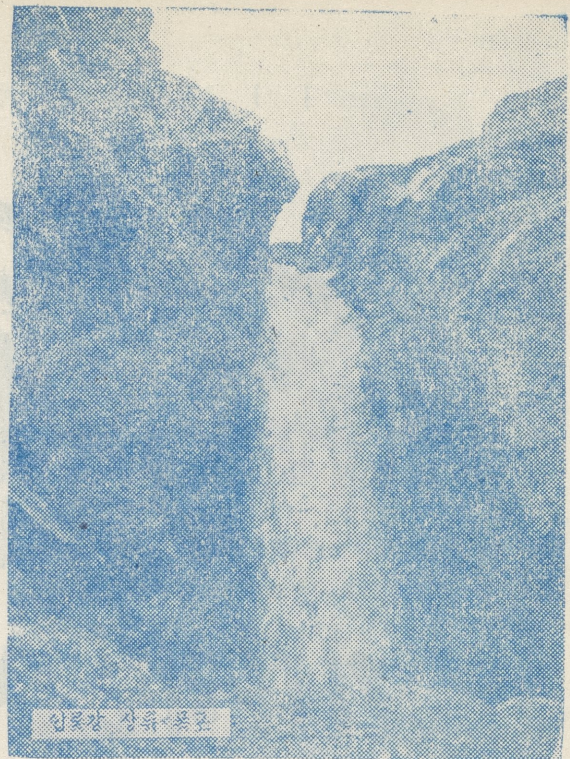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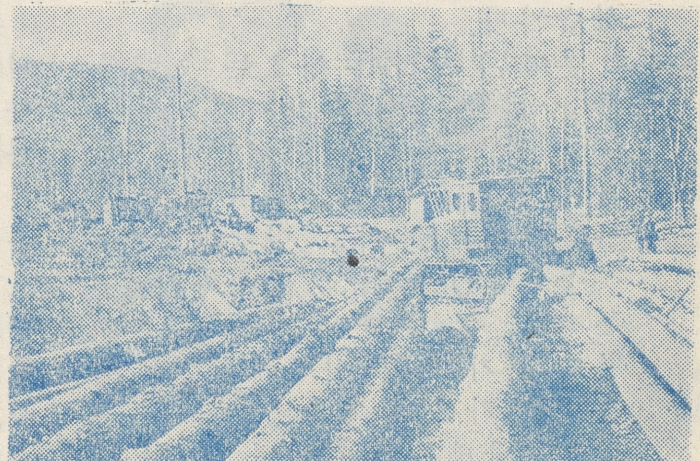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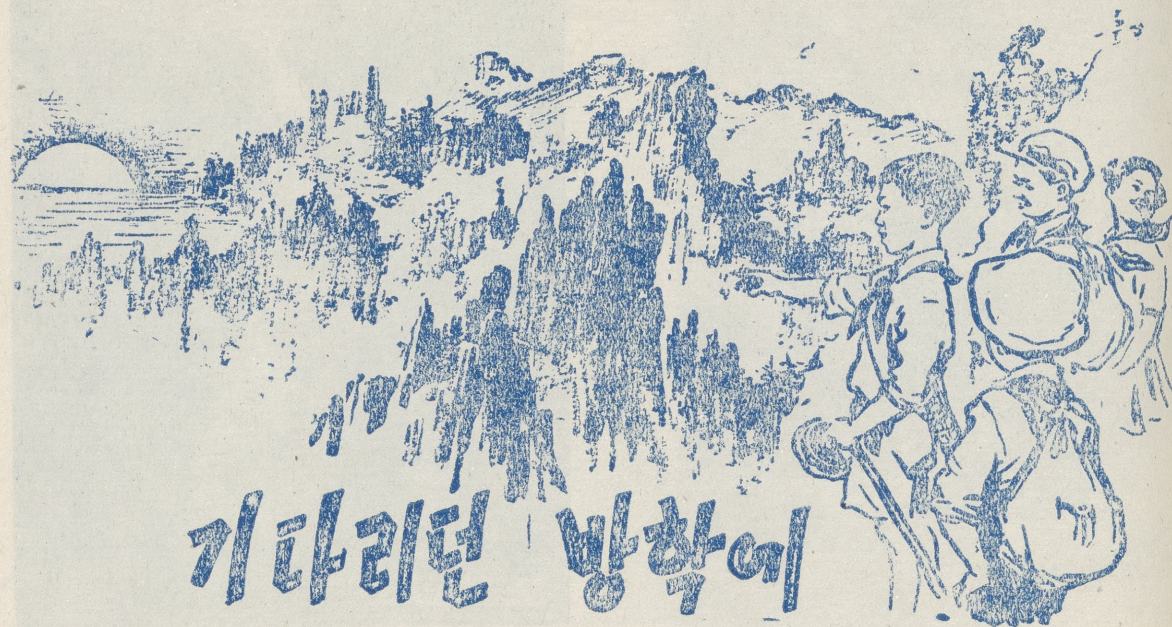
오늘은 여기에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밀림 속 깊이까지 림철이 부설되였고 무연한 초원엔 새로운 농장과 목장들이 설치되였다.

그리하여 백두 고원의 무진장한 자원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귀중하게 리용된다.

압록강 상류 폭포

↑ 정계비 성터

백두 림철 ↓

기다리던 방학에

◇최 옥 선◇ 그림 림 영 환

《애들아! 우린 오랑캐꽃도 할미꽃도 꺾어 왔다》하고 소리치며 2반 동무들은 달음질쳐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한참씩 꽃들을 들여다 보고 나선 오랑캐꽃을 자세히 알았다고들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이 꽃들은 몇칠 전에 국어 책에서 처음 배웠는데 선생님은 들에서 찾아 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학교에 오던 길에서 2반 동무들이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분단 열성자인 영호는 오랑캐꽃을 한참 들여다 보다가 《애들아 우리도 4-5학년 형님들처럼 책에서 배우는 식물들의 표본을 만들어 두자》 라고 말했습니다.

동무들이 좋다고 박수까지 치는 것을 본 분단 열성자들은 반별로 자기 마을 산들에서 식물을 채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책갈피에 식물을 채집해 넣어 가지고 다니는 동무들이 늘어갔고 자연 연구에 점점 취미를 갖게 되였습니다.

선생님은 때때로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남방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셨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무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 연구도 하고 유리관으로 실험하면서 공부하게 빨리 4학년에 올라 갔으면 좋겠다고들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우리도 들에 나가 공부하도록 분단에서 조직합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따뜻해지자 분단에서는 운동장 한 모서리에 밭을 만들어 여러 가지 곡식과 꽃들도 가꾸고 선생님과 같이 들에 나가 국어 책을 읽어가면서 식물, 동물, 바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국어 책에서는 계속 산림에 대한 것, 새들에 대한 것들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분단에서는 여름 방학이 오면 금강산을 답사하면서 마을에서 보지 못하는 식물 동물들을 찾아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　　　*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방학은 왔습니다.

동무들은 포충망, 채집통, 학습장 등 여러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들은 세계에 자랑하는 금강산을 고향에 가진 자랑을 떨치며 노래 소리도 랑랑히 금강산 만물상으로 향하였습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산구비를 구비구비 돌아 낮이 이슥하여 밀림에 다달았습니다.

선참 가던 선옥이가 도라지꽃을 꺾어 들고 선생님 곁으로 달려와《선생님 도라지도 다년생 풀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옥이가 누구보다 배운 것을 똑똑히 안다고 하시면서 도라지도 뿌리는 말라 죽지 않고 있으면서 여러 해 꽃이 피니 다년생 풀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무들은 다년생 풀을 채집하기 위하여 숲속을 걸음마다 살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꽃들과 풀들을 채집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는 활엽수의 잎들도 채집하고 잎이 바늘 같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 침엽수 잎도 채집하여 그 나무들의 이름을 학습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새로운 식물을 찾고 찾으면서 깊은 밀림 속까지 들어 갔습니다.

사방은 아름들이 나무가 꽉 들어 차 해'빛도 잘 스며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어'과에 나온 영수처럼 산림 속에서 방향을 찾자》하고 주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동무는 해가 떠 있는 방향을 살펴 동, 서, 남, 북을 찾았고, 어떤 동무는 나무 가지가 무성한 쪽이 남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들이 몇년이나 자란 것인가를 알아 맞히기도 했습니다.

밀림 속 나무 가지들에선 온갖 새들이 우짖었습니다. 동무들은 우짖는 새소리를 들어가며 새들의 이름과 우는 소리를 학습장에 적었습니다.

밀림 속을 헤치고 나와 산마루에 올랐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들은 가슴을 넓게 펴고 큰 숨을 쉬며 《야! 바다가 보인다!》하고 소리쳤습니다. 고기'배들이 오고 갑니다. 한장의 그림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분단 위원장인 평안이는 바다를 보며 무엇을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애들아 새들만 계절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야, 바다의 고기도 자리를 옮기고 있거든》하고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수자도 《참 그래 청어는 겨울에만 잡히지 않니》 하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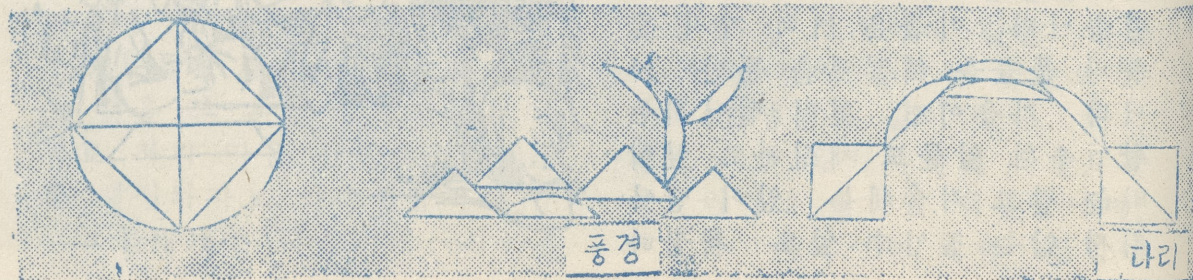
동무들은 계절에 따라 자기 고향의 바다—동해에 나타나군 하는 고기들의 이름을 불러 보았습니다.

동무들은 시원한 바다'물을 바라보며 물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 것을 국어에서 배운 외에 새로운 것들을 꼽았습니다.

《곡식도 키우고, 기차도 달리게 하고, 전기도 일으키고……야 끝없다》, 서로 떠들썩했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물을 리용하는 기계를 한 가지씩 연구해 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은 다시 깎은듯한 암벽을 더듬어 오르면서 4학년에서 배울 화강암을 표본으로 수집했습니다. 열성자들은 표본들을 정리하면서 3학년이 될 동생들에게 선물도 하고 자기들이 4학년에서 배울 것을 표본으로 만들어 학교에 두자고 토론했습니다.

이윽고 누구인가 《만물상이 보인다》라고 하자 동무들은 《만세》 소리를 높이 웨쳤습니다.

이들이 금강산 만물상을 보게 되는 것은 이번 뿐이 아니지만 아름답고 기묘한 경치에 기쁨을 금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옛날 어느 한 중국 사람이 조선에 태여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원이라고 한 세계에 자랑하는 금강산을 고향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나라는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과 행군으로 방학을 지내게 되는 그들의 기쁨은 큽니다.

선생님은 10분단도 구룡연, 삼일포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수산 사업소에로 가 보게 되는데 그때에는 바다의 동물과 더 많은 식물 표본을 만들며 새학년에는 즐겁게 자연을 연구하자고 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야! 좋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흥미있게 진행될 야영 생활을 머리에 그리면서 노래 소리도 우렁차게 학교로 향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 보화, 바다엔 고기……노래 소리는 금강산 온 산천에 메아리쳤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 인민 학교 대 10분단에서

잊을 수 없는 서울 동무

나는 요사이 어느 때보다도 나와 같이 살던 남조선의 동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도 잊은 적은 없지만 불행한 남조선 소년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북반부 소년단원들이 일떠서는 것을 볼때 남조선의 동무들을 더욱 간절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남조선 땅에 살던 7년 전에도 배고파 학교에 못가는 동무들, 풀만 먹어서 온 몸이 부어 앓는 동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고사하고 학교 문에라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지가 되여 헤매는 소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집에서도 나를 서울 성신 국민 학교에 입학시키느라고 입던 헌 옷마저 팔아 학교에 기부금으로 바치고 헐벗고 풀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야유회 가는 날도 나는 풀죽을 싸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나는 부자'집 아이들이 업수이 여길가바 야유회에 가다 말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온《국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압박과 착취는 그 전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나의 앞집에서 살았으며 나와 제일 친하던 계숙이는 그때도 학교에 못 가고 어머니와 같이 하루 하루 남의 삯일을 해서 살더니 지금은 죽지나 않았는지 근심입니다.

남조선의 불행한 동무들을 구원하자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직접 남조선에서 쓰라린 생활을 지내 본 나의 가슴을 더욱 끓어 오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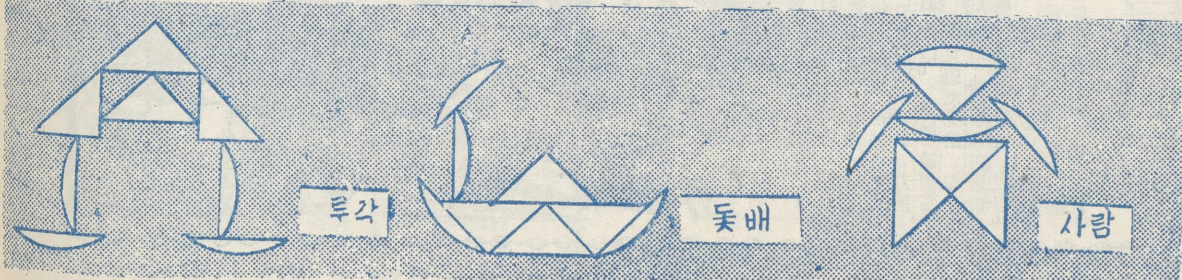
나는 나의 동무 계숙이도 남조선의 전체 동무들도 학교에 갈 나이만 차면 학교에 가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를 위하여 나의 어린 힘으로나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힘껏 다하여 불행한 남조선의 동무들을 돕겠습니다.

지금 풍부히 쓰고 있는 학용품을 절약해서 보내고 명절 날에 어머니가 주는 돈, 아버지가 월급 타신 날 주는 돈, 손님이 오셨다 주는 돈도 저금하였다가 보내겠습니다.

금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나의 어린 동생 영혜에게도 이야기해 주었더니 나 보다 더 많이 보내겠다고 뽐냅니다.

내가 힘쓴 보람이 남조선에 있는 나의 친한 동무 계숙에게, 불행한 전체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면 더 힘써야 되겠다는 결의가 저절로 다져집니다.

평양 제 2 고급 중학교 초급반 박 임자

종이 공작 만들어 보십시요

불행한 남반부 소년들을 함께 돕자

미제는 물러가라!

남반부 소년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 도당 때문에 불행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소년단원들은 《미제는 물러가라》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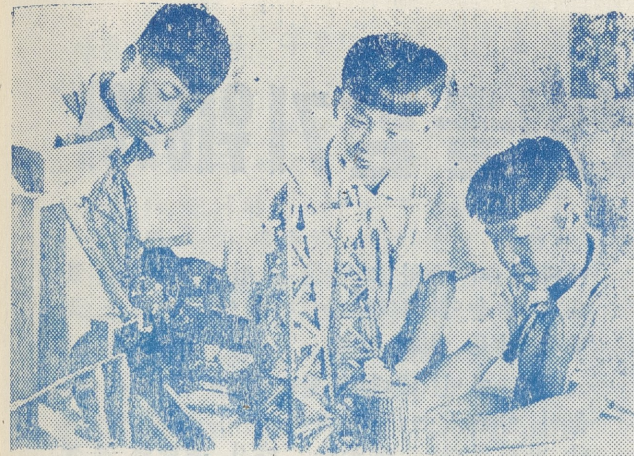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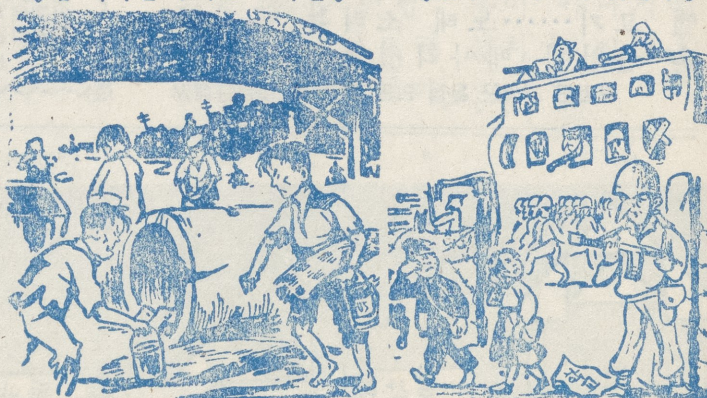
미제와 리승만 통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반부 소년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운전 제2중 인민반 동무들)

벌써 12년이 되는데

미제와 리승만 도당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의 인민들은 물론 소년들도 불행하다. 해방되여 벌써 一二년이 되는데 해마다 불행은 줄지않고 커가고 있다.

쌀 고장인 남조선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 벼 모를 밑천으로 하여 가을 벼를 미리 팔고 있다. 있는 공장도 굴뚝에 거미줄을 치고 있다. 늘어 가는 것은 감옥이며 굶주려 거리를 헤매는 고아들과 거지들이며 학교에서 쫓겨 나는 학생들이다. 놈들은 전쟁 나발만 불고 저들의 배만 채우기 때문에 이 불행은 날로 심해 가고 있다.

◇잠'자리를 구하는 고아들◇ ◇굶주려 학교에 못간다◇

실험기를 더 만든다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학습과 실험에 쓸 실험 기구 외에 더 실험 기구를 만들고 있다. 남조선 동무들에게 보내기 위하여—(선천 초등 학원 소년단원들)

—◇—

벽보 특집호를 만든다

평양 제 2중학교 소년단원들은 남조선 소년들을 구원 함데 대한 벽보를 만들고 있다.

◇《승냥이》 때문에 죽는 소년들◇

아름다운 마음 가륵한 마음

어깨를 겯고 춤 추어야 할 동무, 가즈런히 앉아 공부해야 할 동무, 손목을 잡고 야영도 가야 할 동무—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남조선 소년들을 공화국 북반부 소년단원들은 꿈에도 잊지 않았다. 새 실험 기구를 만들고 기뻐할 때 남조선 소년들을 생각했으며 경치 좋은 소년단원 야영소로 떠날 때, 그리고 공장 견학이나 즐거운 려행을 떠날 때 그들을 생각했다.

7월 5일에 그들 불행한 남조선 소년들을 구원하자고 평양 2중 소년단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나왔다. 《미제는 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남조선 소년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나누어 주자는 아름다운 이 소식은 북반부 소년단원들에게 번개처럼 알려졌다.

반룡산 기슭에서 1만 1천여명 소년단원들이 모여서 가진 함흥시 소년단 련합 모임에서 함흥 6중 홍 세영 동무는 서울 강남 국민 학교를 미군에게 빼앗기고 동무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던 지난날을 돌이켜 말하면서 날강도 미군을 물러 가게 하며 남반부 소년들을 돕는 것은 우리들의 애국적 의무라고 말했다.

자강도 룡림 고중 대 소년단원들은 한 장의 종이, 한 자루의 연필, 한 점의 잉크라도 더 아껴서 남쪽 동무들에게 보내겠다고 결의했다.

개성시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누리는 행복을 맛아면서 이 행복을 아직도 미제와 리승만 놈들의 통치 밑에서 고생하는 남반부 동무들과 같이 하루 속히 누리기 위하여 힘쓸 것을 결의했다.

사리원 2중 소년단원들은 남조선 소년들에게 구호금을 보낼 것을 결의하면서 평양에서 체육 연예 모임을 남반부 소년들과 함께 즐기자고 하였다.

이렇듯 깡통을 차고 헤매는 고아들과 굶주려 죽어가며 학교에서 쫓겨나는 남조선 소년들을 도울 데 대한 우리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불 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천되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며 가륵한 행동인가! 이 아름다운 열매는 거리와 마을에서 학교와 집에서 날로 커간다.

조국을 사랑한 모범을 받기위하여

◇리 종 근◇

지난 2월 분단 위원장 경애는 몇몇동무들과 함께 추운이네 집에 놀러 갔었다.

마침 그날은 추운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였다.

추운이 어머니는 책상 우에 놓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아들 딸 다섯 형제를 가즈런히 앉혀 놓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 항상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고 훌륭히 배우는 것 밖에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바라신대로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어머니는 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경애네는 처음으로 추운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경애는 추운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추운이 형제들에게만 아니라 분단 동무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처음으로 추운이 어머니를 모시고 추운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추운이 고향은 원래 강원도였다.

일제때 추운이 아버지는 거지와 같은 생활에 웃음없는 세월을 보내 왔었다. 지주의 머슴 살이로 숱한 매도 맞았고 헐벗고 굶주렸다.

해방의 기쁨은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추운이 아버지에게도 안겨졌다.

나라의 주인이 된 추운이 아버지는 해방된 첫날부터 나라를 위해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발 한 고랑도 없던 추운이네 집에 수천평의 땅이 분여되였다.

추운이 아버지는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나라 일도 많이 하여 모범 농민이 되였고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시면서 도에서 여러번 상장을 탔다.

추운이네 형제들은 학교에 모두 다녔고 살림은 나날이 행복해 갔다.

우리의 행복한 살림을 빼앗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전쟁을 일으켰다. 추운이 아버지는 전선이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을 했다.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추운이 아버지는 빨찌산에 들어갔다. 《어느날 밤이였다. 어둠을 타서 부락에 정찰 나오셨던 애 아버지는 잠간 집에 들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더 있으면 인민군대가 나온다 괴로움을 참고 기쁨의 그날을 맞자 놈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라고 하셨다. 그후 며칠이 지난 후 인민 군대 선발대가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래서 거기서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하였다.

그날 밤이 바로 2월 4일이다. 애 아버지가 빨찌산의 련락을 가지고 인민 군대를 찾아 오셨다. 아직 부락에는 미군과 괴뢰군이 있었고 그놈의 앞잡이인 〈치안대〉놈들이 완장을 끼고 날뛰던 때다. 애 아버지를 일제 때 그렇게 때리고 부려 먹던 지주놈의 아들 정 대렬이가 〈치안대〉 대장으로 으르렁댔단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 가시던 애 아버지는 그만 정 대렬놈에게 발각되였단다.

그놈은 승냥이처럼 달려 들어 아버지를 쏘았다.

총소리를 듣고 뛰여 나간 인민 군대는 그놈을 붙잡았다.

애 아버지는 나에게 아이들을 데려 오라고 했다. 아버지 옆에 가즈런히 앉은 다섯 형제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울지말아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가 제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이니 이것은 장한 일이다. 울지말고 어떤 놈이 우리의 원쑤가를 똑똑히 봐라! 이놈이 바로 일제 때 너의 아버지를 못살게 굴고 피를 빨아 먹던 지주놈의 아들이다. 우리의 원쑤는 바로 이런 놈이며 이런 놈과 한편인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다. 너희들은 잊지말라! 우리의 원쑤를)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정 대렬을 쏘아 지게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날부터 애들을 잘 길러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하기에 힘썼다.

지금 애 언니와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 훌륭히 일하면서 어머니는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어찌 성한 몸으로 거저 놀고 있겠니! 애 아버지를 생각하더라도 더 일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 이곳에 옮겨 온 후도 제유 공장에서 일한다. 나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도울 수 있으니까 참말 기쁘다》.

추운이 어머니의 긴 이야기에 분단 동무들은 격동되였다.

분단 동무들은 추운이 아버지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배워 나라를 위해 훌륭히 일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졌다.

그후 분단에서는 《추운이 아버지 원쑤는 우리의 원쑤》라는 모임을 가지고 추운이를 더 사랑해 주며 도와 주자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애국 렬사들처럼 나라를 사랑하자고들 이야기했다.

분단에서는 20년간 로동 생활을 한 리보월의 아버지를 모시고 일제 때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착취하였으며 그때 로동자들의 비참한 이야기도 듣고 지주의 머슴살이로 고생하신 박 송자 아버지를 찾아가 일제 때 농민들의 생활과 송자 아버지가 머슴살이로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 4일 분단에서는 6.6절을 맞으며 《나라를 사랑한 그이들처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자》 라는 모임을 가지고 지난 2월부터 가진 애국 렬사들의 투쟁, 일제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생하시던 이야기등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내놓고 이야기했다.

이 모임에서 분단 동무들은 지금 행복한 공화국 품안에서 즐겁게 배우는 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신 렬사들의 모범을 받아 더 열심히 배우고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준비할 것을 마음 다졌다.

그리고 바로 일제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착취 억압하던 그런 지주 자본가들이 그리고 추운이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쑤들이 남조선에 둥이를 틀고 앉아 행복한 우리의 생활을 빼앗으려고 꿈꾸고 있으며 또 그놈들이 간첩을 들여보내여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단 동무들은 어떤 놈이 우리의 원쑤인가를 잘 알아야 나라를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지금 분단에서는 청진시에 세워진 애국 투사 추모탑에 모신 애국 투사들의 투쟁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 모신 15명의 애국 투사들은 모두 청진시에서 탄생하신 분들이고 그중 10명은 일제 때 조국 해방을 위해 투쟁하시다 사망한 분들이고 5명은 지난 전쟁때 미제놈들에게 학살당한 분들이다. 분단에서는 이분들의 주소를 알아 내여 투쟁 내용도 연구하고 있다.

청진 제 2중 학교 대(제42분단)에서

>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오래 옛날부터 인류 문화의 공동적 보고에 기여할만 한 적지 않은 과학적 창조와 발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일성)

우리 선조들이 처음 발명한 것들

세계에서 처음 만든 금속 활자

우리 나라에서는 동을 비롯한 각종 금속들이 풍부하고 주조 기술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를 부어 만들어서 책을 인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나무판에 글을 새겨서 종이에 찍는 방법과 손으로 필사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에는 나무로 또는 사기로 활자를 만들어서 찍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려 시대에는 세계에 자랑할만 한 책들이 많이 인쇄되였습니다. 1236년에 시작하여 1251년에 완성한 10만매에 가까운 판목으로 인쇄된 대장경 출판은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과 자료와 로력이 많이 드는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어려운 이 일을 헐하게 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창의로써 발명된 것이 금속 활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금속 활자가 사용된 것은 1234년에 고려의 법률 서적인 《상정례문》 50권을 금속 활자로써 인쇄하였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요한 구 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한 것보다 200년이나 앞서 세계에서 처음 발명 사용된 것이며 우리 나라의 큰 자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하게도 발명한 사람도 알수 없으며 그 당시의 활자나 활자로 찍은 책까지도 여러 차례의 난리로 인하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금속 활자의 인쇄 기술이 계승 발전되여 리조 시기 특히 15세기의 전반기인 태종과 세종 시대에는 놀랄만큼 인쇄술이 발전되였습니다.

세종 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혁된 활자들로써 대단히 많은 책들을 인쇄하였는데 그 중의 몇가지 책들은 현재 국립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 시대에 인쇄 기술을 발전시킨 공로자는 리 천이였습니다. 그는 오늘의 식자와 조판과 다름이 없는 원판을 고안하였으며 우리 나라 인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측우기의 발명

1441년 리조 세종 23년에 리 천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명한 측우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측우기란 비가 내린 량을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이 측우기는 동으로 주조한 길이 1척 5촌 원경 7촌의 둥근 대통으로 사각형의 돌로 된 축대 우에 올려 두고 비가 내리면 이 통에 담긴 물을 주척으로 물 깊이를 알아 원통 전체의 량을 계산한 후 매 평당 강우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측우기는 천문 관측 기관인 서운관에 비치하여 두고 전문적인 관원이 엄밀하게 측정한 후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측우기는 서울에만 비치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도 비치하였습니다.

1443년에는 측우기의 본을 전국에 내려 보내여 각 군과 읍에서 이대로 만들어 관청에 비치하고 지방 관리들이 비 올 때마다 강우량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측우기의 제작은 조선 농민들이 장기간에 걸친 자연과의 투쟁에서 이루어진 발견입니다.

이 측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비 오는 때를 1년간을 통해서 측정하고 매월 평균 비 오는 분량과 지방에 따라 각각 다른 비 오는 분량을 정확히 조사한 후 비 오는 때와 가므는 때의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측우기에 의한 비 오는 분량의 정확한 조사는 각지의 풍수해를 미리 대책세워 피해를 아주 적게 하였고 지방에 따라 종자의 선택, 파종 시기의 선후에도 깊이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측우기에 의하여 절후를 정확히 측정하고 각지의 우량을 계절에 따라 통계적으로 장악한 이 사실은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도 큰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리 천에 의해서 제작된 측우기는 지금 남은 것이 없으나 이것을 견본으로 하여 만든 영조 시대의 유물이 근세까지 각 지방에 있었고 최근까지 함흥과 서울과 대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 (희)

《보물》 치지 놀음

이 유희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많은 동무들이 놀 수 있는 유희이다.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에 그림과 같이 선을 그어 유희장을 만들고 두 패로 나뉘어 유희를 시작한다.

유희자들은 《시작》 신호와 함께 서로 자기 진지를 떠나 밖으로 나가고 다시 상대편 진지에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자기 편의 보물을 찾아 오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때 유희자들은 서로 상대편 유희자들이 밖으로 나올 때나 자기 진지로 들어 오려고 할 때에 그들을 유희선 안으로 혹은 밖으로 밀쳐 내야 한다. (움페호에 들어 가 있는 동안은 밀쳐 낼 수 없다)

이렇게 밀려 나가거나 끌려 들어 온 유희자는 곧 유희에서 제외된다.

상대편 진지에 뛰어 들어가 《보물》을 가지고 자기 진지까지 돌아 오면 승리한다.

이렇게 한번 승부가 끝나면 다음은 서로 진지를 바꾸어 유희를 다시 시작한다.

× ×

우리 나라에는 이 이외에도 뛰여난 발명가들의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고귀한 애국주의 정신을 배우며 그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또 자기의 경험과 생활 가운데서 더 한층 과학적 지식을 창조하는 일'군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오 창 근

우화

솜장사네 당나귀

원 도 홍

솜장사네 당나귀
짐을 지였다.
보기에는 언덕만큼 높다란 짐
그러나 실속은 다섯관 반.

솜장사네 당나귀
길을 떠났다.
뒤뚝뒤뚝 장으로
코나발 요란히——

솜장사네 당나귀
가다가 만났다.
땀을 흘려 뻘뻘, 느릿느릿 걸어 오는
놋쇠짐 쉰관 등에 진 황소.

솜장사네 당나귀
비교해 봤다.
산만큼 높다란 자기의 짐.
황소의 등에 붙은 상자 짐 하나.

열곱도 더 커뵈는 자기의 짐.
그래도 잘만 걷는 자기의 다리.
암만 봐도 자기 힘이 더 세뵈여
당나귀는 우쭐해서 코나발 불었다

—여보게 고걸 지고
그렇게 죽어 가니
자네가 내 짐 졌단
깔려 죽고 말았겠군………

* *

자기만 큰일 한다 떠드는 자
미련한 당나귀의 코나발 아닌지?
일을 두고 깐깐히 생각해 보라.

쏘련 삐오네르의 영광스러운 길

이. 쩸쓰까야

1957년 5월 19일에 쏘련 삐오네르 단체는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로동 계급의 사업에 충직하겠다는 것을 맹세한 어린이들은 그 후에 어른이 되여 로동자로 되고 꼴호즈원으로 되고 기사로 되고 또한 학자로 되였다. 그들은 지금 쏘련의 방방곡곡에서 일하고 있다. 모쓰크바의 《낫과 마치》 공장에서는 기사 뽀도보이쓰끼가 일하고 있다. 35년 전에 그는 모쓰크바의 학교 아동으로서 처음으로 삐오네르 단체에 들어 갔었다. 오늘날 국제 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평화 사업을 고수하기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있는 쏘련 외무 부상 웨.아.조린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붉은 넥타이를 달고 다녔으며 모쓰크바의 삐오네르 단체의 적극적 조직자로서 활약하였다.

오늘날 쏘련의 공장, 제조소, 꼴호즈, 농촌 및 도시들에서는 이전의 많은 삐오네르들을 만날 수 있다. 35년 전에 조직된 삐오네르 단체는 조국에 충실한 수백만의 쏘베트 애국자들을 길러냈다. (중략)

짧은 기한내에 삐오네르들은 많은 훌륭하고 유익한 일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선배들의 훌륭한 방조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유식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 조국에 필요하다. 수천명의 삐오네르들이 문맹 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제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였다. 공장, 탄광, 발전소 및 주택들이 건설되였다. 공장과 제조소들에서는 많은 원료들이 요구되였다. 수천의 삐오네르 분단들이 공장에 필요한 파철을 수집하였다.

농촌에서 꼴호즈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빈농 및 중농이 꼴호즈에 들었다.

부농들은 자기들의 멸망의 날이 가까와 왔음을 느끼고 최후 발악을 하였다. 마을의 훌륭한 사람들을 살해하였으며 꼴호즈를 방조하는 삐오네르들을 박해하였다.

어느 한 여름날 밤에 레닌그라드 시의 《크라쓰나야•니뜨까》 공장의 삐오네르 분단은 전부 피살될번 하였다. 그들은 와쓰껠르브 구역에서 빈농들이 건초를 추수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작업이 끝난 후에 삐오네르들은 피곤한 김에 쌓아 놓은 건초 적치장에서 그만 잠들어 버렸다. 이윽고 분단 위원장이 잠을 깨여 본즉 주위에는 연기가 자욱하였다. 건초 더미가 불타고 있었다. 부농들은 삐오네르들이 잠들고 있는 건초 적치장에 불을 붙이고 문을 채워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분단 위원장은 연기 속에서 문 판자의 틈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였다. 드디여 삐오네르들은 문을 마사 버리고 문 밖으로 뛰쳐 나왔다. 그들은 곧 줄을 서고 물 바케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전하고 불을 껐다.

1932년 10월 15일에 우크라이나의 게라씨모브까 마을에서는 부농에 의하여 삐오네르 빠블리끄•몰로조브가 살해되였다는 소식이 전 국가에 퍼지게 되였다. 모쓰크바의 첫 삐오네르 분단이 조직된 구역에 있는 삐오네르 공원에는 한 기념비가 세워졌는 바 그 기념비에는 훤한 얼굴을 한 한 소년이 붉은 기를 손에 들고 앞을 내다 보는 동상이 서 있다. 이 기념비는 부농을 폭로한 용감한 우크라이나의 삐오네르 빠블리끄•모로조브를 기념하는 것이다. 삐오네르의 공적들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로 전하여지고 있다. 공적들은 수없이 많다. 삐오네르 주인공들의 이름은 삐오네르 단체의 영예 기록장에 기입되여 있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독일 침략자들의 후방에서 활약하던 빨찌산 부대들의 용감한 정찰병들인 월로쟈•두비닌 및 왈랴•끄찌끄와 조국 전쟁 시기에 두 련대의 군기를 구원한 끄쓰쨔•끄라브추끄와 또한 어려운 전쟁 시기에 성인들과 나란히 싸우고 자기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이바지한 리다•마뜨웨예브, 위쨔•끄로브끄브 및 기타 삐오네르의 이름들이 삐오네르 영예 기록장에 기록되였다. 조국 전쟁 시기에는 《모쓰끄브쓰끼•삐오네르》《이르꾸쯔쓰끼•삐오네르》《노브씨비르쓰끼•삐오네르》 등의 이름이 붙은 땅크들이 공격전에 나갔다. 《따쉬껜뜨쓰끼•삐오네르》《끄미 자치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삐오네르》라는 이름이 붙은 비행대들이 전투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였다. 이러한 비행기와 땅크들은 삐오네르와 어린 학생들의 헌금에 의하여 제작되였다. 삐오네르들은 항상 쏘베트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삐오네르들은 파괴된 국가 경제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공원을 가꾸었고 도로의 록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진흙, 모래 및 돌들이 있는 곳을 탐사하였으며 파철을 수집하였으며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그들은 토끼와 망아지도 기르고 있다.

모로조브의 동상

어린이들이 첫 선서를 하고 이미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쏘련의 삐오네르 단체는 그 성원이 많아지고 그가 웨.이.레닌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성의껏 높이 받들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지난 4월 28일, 우리 군에서는 5•1절을 맞는 써클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이 오래 전부터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출연하였습니다.

허 장국 동무의 만도링 독주 (로동당의 기'발 따라)와 피리, 행금, 키타, 대고, 소고, 하모니카 등을 합한 《김 일성 장군의 노래》 합주는 관중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 동무들은 우리들에게 악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슴 없이 악기를 만들 때 쓰던 도면에 간단한 설명문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리는 참대통을 가지고 그림 (1)과 그림 (2)에 보여 준 규격 대로 만들었다. 구멍은 불에 달군 쇠'고치로 뚫고 입술에 대이는 홈은 참대통 안쪽으로 경사지게 깎았다.

2 행금은 참대통 (3) 한쪽에 밀을 먹인 종이를 붙였고, 음의 조절은 못 (2)을 돌리면서 하면 되였다.

3 키타를 만드는 법

(ㄱ) 재료—오동나무 (1) 철판 (2, 5) 참죽나무 (4) 철사 (8) 못, 까풀 등

(ㄴ) 필요한 도구—자귀, 톱, 대패, 끌, 칼, 가위, 송곳, 마치 등

(ㄷ) 주의할 점—번호 (3)에 달린 깊은 홈에 울림통 (1) 앞판을 꽂고 까풀칠하고 못을 박는다.

번호 (6)은 울림통 앞판과 뒤'판의 받침'대로 사용되며 또 울림통을 둘러 싸는 철판이 잘 붙게 하는 받침'대로도 리용된다. 반드시 울림통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번호 (8) 철사는 모두 달라야 한다. 우리들은 피복선, 전화선, 코이르선 등을 사용했다.

× × ×

우리들이 만든 이 악기들은 아직 불충분한 점들이 많습니다. 좀 더 우리 목공 크루쇼크원들의 솜씨를 내여 훌륭한 악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황남 옹진군 서해 인민 학교 대
위원장 리 종화

우리들의 그림 편지

그는 소년단원인데

만화

래일만 믿다 가는

오빠 — 같이 숙제하면서 좀 가르쳐 줘요

방학인데 뽈도 좀 차야지 래일 하자

오늘은 꼭 하자요

오늘은 낚시질 간다 래일에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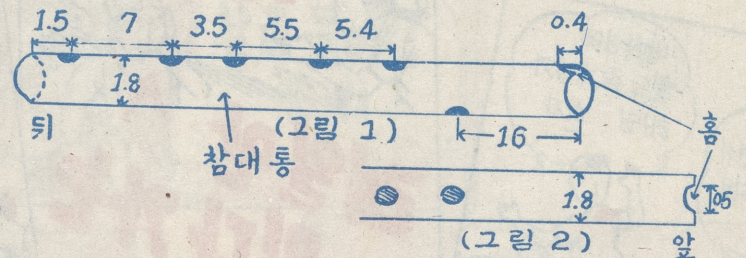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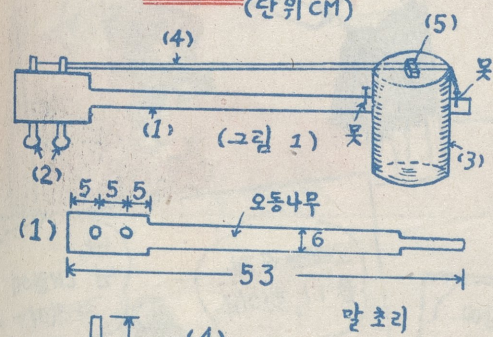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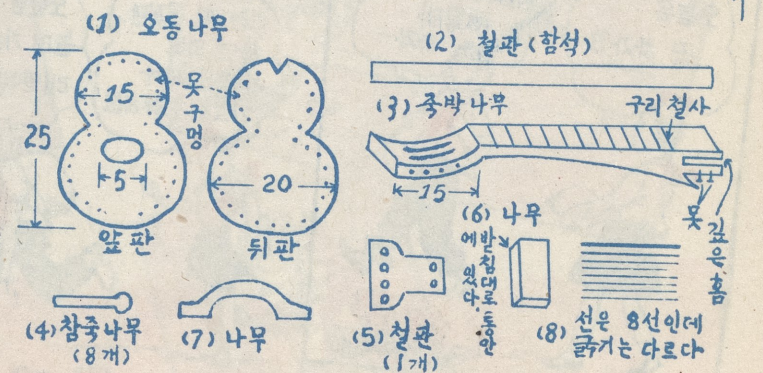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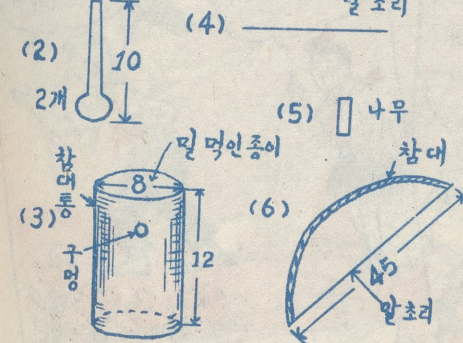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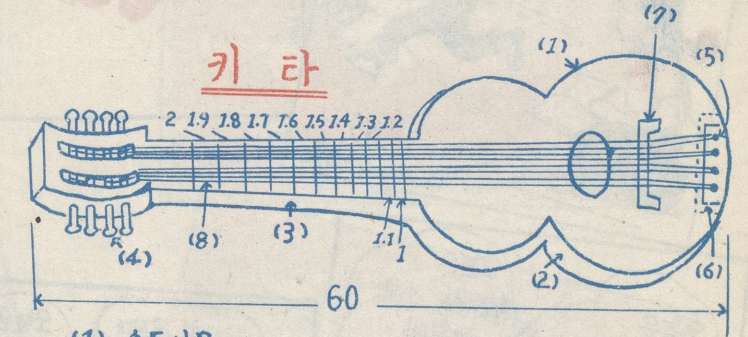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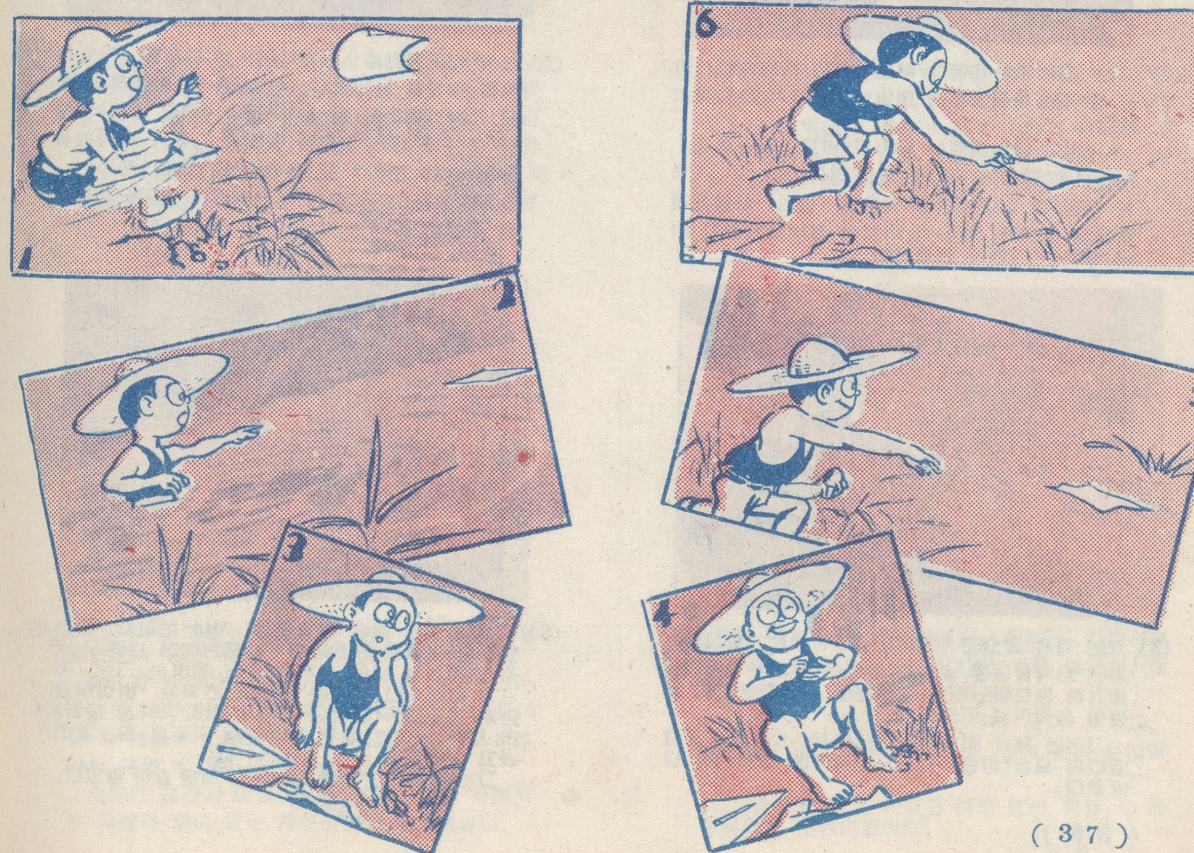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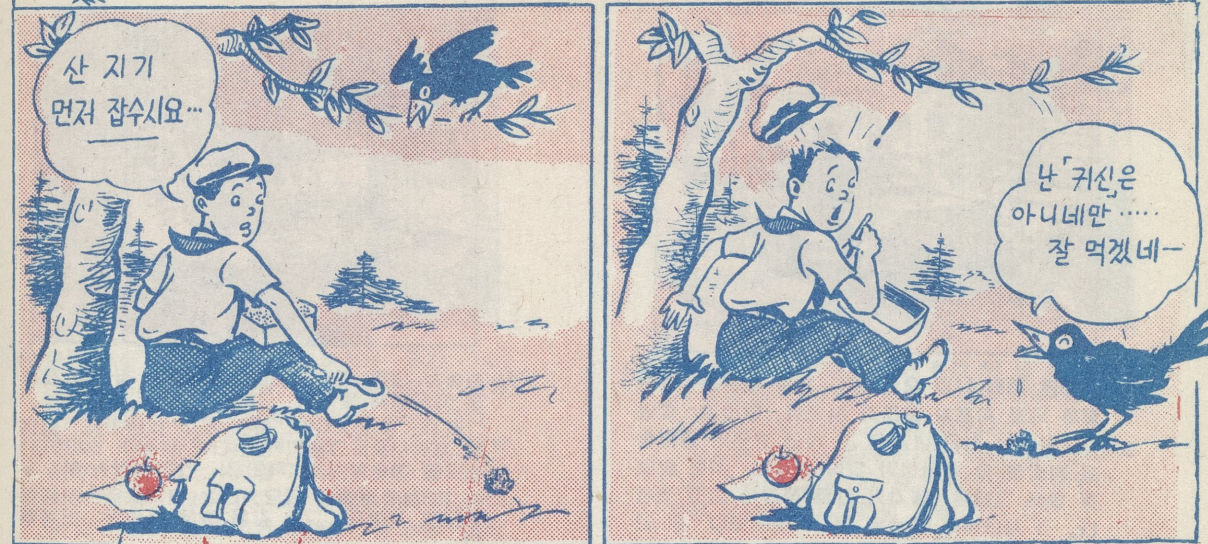
이젠 한 문제만.. 하면 돼요 이건 오빠가 가르쳐 줘야해요

오늘은 산에 놀러 가는 날이니 래일에 하자—

오빠는 숙제를 다 했어요?

나? 난 래일에 하겠어—

래일은 학교 가는 날이예요

뭐—?! 래일이 벌써 9월1일이냐?

끝장 난 《꿈》

글 최화규
그림 남현주

(1) 1956년 10월 11일 오후 5시—서울 룡산을 떠난 정체 모를 찌프차 한대가 북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에는 검은 안경을 낀 미군 중위와 평범한 옷 차림을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서로 말없이 앉은 그들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사나이의 얼굴은 미군 중위보다 더 근심에 잠겨 있었다.

(2) 그는 그해 5월 10일에 서울《사원 다방》에서 미군 중위와 쑥덕공론을 하던 일을 생각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두가지 일을 맡기겠소. 북조선에 들어가 군사 비밀을 알아 내는 것, 〈북진 통일〉이 실현된다고 여론을 돌려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요》라고 미군 중위는 그에게 말했었다.

(3) 차는 계속 앞으로 달렸다. 주위에는 찌그러져 가는 오막살이들, 굶주려 맥없이 일하는 농민들, 황폐한 농토들—미국놈 때문에 불행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차는 큰 도로에서 벗어나 좁고 길다란 오솔'길을 달렸고 한참만에 분계선에 다달았다.

(4) 차에서 내린 미군 중위는 선량하고 침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밀을 지키시요,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이 〈치안대〉 노릇을 하면서 사람 죽인 것, 간첩이라는 것, 우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모든 비밀이 탈로될 것이요》 그는 같은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5) 밤이 깊어가기를 오래'동안 기다리던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하오. 일만 잘하고 돌아 오시요. 〈북진 통일〉되는 날 당신 팔자가 고처질 것이요. 재령 평야에서 땅을 찾고 지주로 될 것은 문제 없으니까…》.

사나이는 미군 중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6) 그 사나이는 짙은 안개로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리용했다. 세째번에야 다행히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선적리 땅에 들어선 그는 저으기 안심했다. 그는 발밑에 스치는 벼이삭을 만져 보았다. (풍작을 이루었구나, 《북진 통일》이 되는 날에는 재령 평야에서 지주로 될 것이라고 말했지)

그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옷을 갈아 입었다.

(7) 회색 조선 의복과 명주 두루마기를 걸친 그는 사방을 조심스럽게 살펴가며 류숙할 집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발붙일 집은 하나도 없었다. 선적리 채인 마을 입구에 들어 섰던 그는 깜짝 놀래여 도망쳤다. 마을 자위대원들이 순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는 개울에 빠지기도 하며 엎으러지기도 하면서 간곡동 뒤'산에 올랐다

(8) 산등선이에서 안전한 곳을 찾노라고 헤매던 그는 밝아 오는 새벽에야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아침 일찌기 학교 가는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는 소년들을 피여 젖은 옷을 말리워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한 소년이 책가방을 메고 그가 있는 곳으로 올라 오고 있었다. 일이 뜻 대로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9) 《벌써 학교 가냐》 하고 이웃 사람처럼 친근하게 물었으나 그는 낯선 사람이였다.

《너 참 똑똑하구나, 암 그래야지》 하고 그는 소년을 칭찬하면서 《난 평산 트레스트 로동자인데 저 개울에서 세수하다 빠졌단다. 너네 집에 가서 옷을 말리울 수 있겠니》고 말했다.

소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가리키는 개울은 물이 없는 개울이였기 때문이였다.

(10)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엔 집이 단 세 채 뿐이라는 것을 안 그는 《잘 됐다. 너의 집에 가서 옷을 좀 말리우자꾸나》 라고 말했다.

수상한 사람이 틀림 없다고 믿은 소년은 더욱 그를 친절히 대하면서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낯선 사나이는 서슴없이 뒤를 따라 갔다.

(11) 집으로 온 소년은 부엌에서 설겆이하는 누님에게 수상한 사람이라고 눈짓으로 전했다. 그의 누님은 자위대에 알리려 가고 소년은 학교로 가는척 하면서 분주소로 달려 갔다. 잠시 후 자위대원들과 분주소 내무원 아저씨들이 달려 왔다.

(12) 그는 미군 제8 정보부에서 파견한 간첩이였다. 적 강점 시기 《치안대》 노릇을 하면서 애국자들을 학살한 것도 드러났다.

체포되여 가는 간첩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공화국의 한 소년의 활동으로 그의 꿈은 끝장이 났다.

그 소년은 바로 판문군 선적 인민 학교 서 동순이라는 소년단원이다.

덧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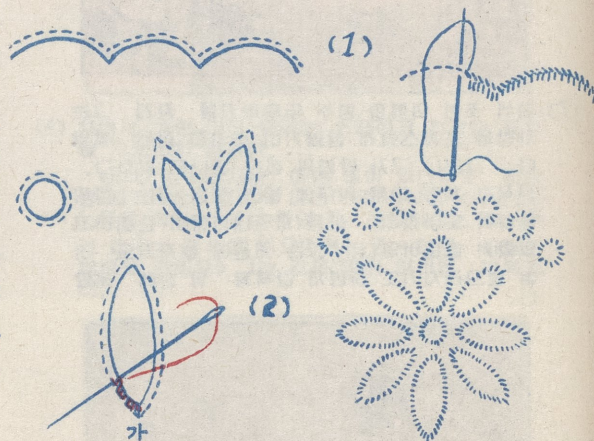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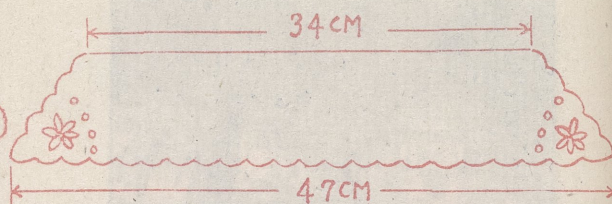
흰 옥양목이나 흰 광목으로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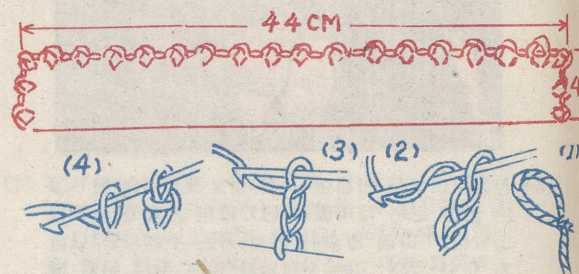
넓이 10cm 길이 47cm의 천을 그림과 같이 그린 곡선에서 1mm 정도 밖으로 잘게 혼다. 다음 그림 (1) 과 같이 단추 구멍을 만들듯이 바늘 끝에 실을 걸어 당기는 수를 놓는다. 그것은 완성된 후 천을 밖으로 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늘 뜸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카라 끝의 꽃 수는 그린 선에서 1mm 정도 밖으로 속수를 놓은 후 그림 (2)와 같이 속수 밖으로 바늘을 뽑아서 감는 수를 놓는다. (가)까지 한번 돌아 오면 안쪽에서 실을 맺고 그대로 실을 끊지 말고 안쪽에서 시작하여 다음 꽃의 속수를 시작한다.

완성된 후 속천을 베여낸다. 작은 동근 구멍을 할 때는 속수를 놓지 안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감는 수를 놓는다.

특히 주의할 것은 속수를 놓을 때 넓이를 가지런히 하지 않으면 웃수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서 보기 흉하다.

다되면 다리미로 다린다.

목달개

넓이 9cm 길이 45cm 되는 천을 혼솔 5mm 꺾어 넣고 절반을 접은 정방형을 그림 (1) 과 같이 코바늘로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림 (1) 과 같이 코바늘로 실을 당기면 고리 같이 물려 나온다. 그림 (2) 와 같이 세번 계속 당겨서 그림 (3) 과 같이 먼저 잡아 당긴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 실을 당겨 두 고리를 합쳐 한 고리를 만든다. 다음 위치로 바늘을 옮길 때는 그림 (4) 와 같이 하면 된다. 흔히 색실을 많이 사용하지만 흰 색이 깨끗하고 볼품도 좋다.

맵시 있는 바늘 꼬비

재료—주홍 색, 푸른 색, 흰 색 천

마르는법, 그림과 같이 치'수대로 종이의 본을 따서 필요한 매수를 마른다. 직경 12cm의 주홍 색은 천 우에 원을 그려 둔다. (주홍 : 붉은 빛과 누른 빛과의 중간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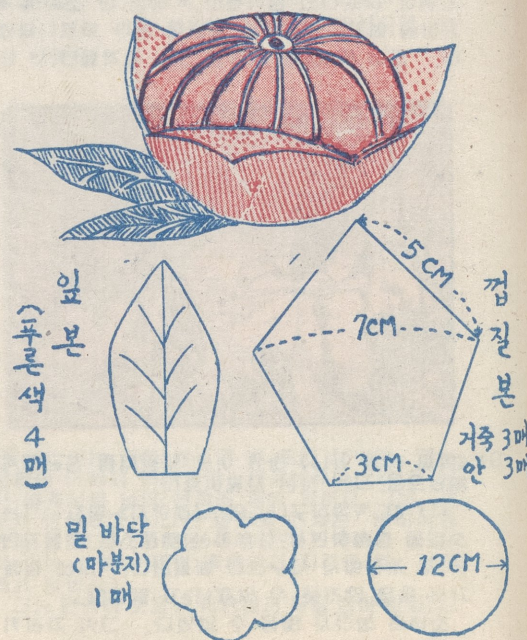
바느질 법

(1) 직경 12cm의 천의 주위를 화서 솜이나 머리칼을 적당히 넣고 당긴다.

(2) 다음 흰 색의 명주 실로 안 중심에서 바늘을 뽑아서 (十)자가 되도록 실을 조금 세게 당겨서 다시 (十)자 새로 두 줄기 실을 건다. 그러면 열두 쪽의 귤이 된다.

(3) 잎은 안을 대고 화서 거죽으로 뒤집은 후 백색 명주실로 뒤로 실뜸이 나오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잎에 줄기를 만든다.

(4) 귤 껍질의 안과 거죽을 따로 화서 붙인 후 다시 삼각의 안팎을 마주 붙여서 뒤집은 후 밑을 화서 당긴다. 잎의 속을 정돈하기 위하여 속에 종이를 넣어도 좋다

(5) 다음 마분지로 바닥의 토대를 만들어 푸른 색 천을 씌운다. 그 우에 두 매의 잎을 놓고 붙인다. 다시 그 우에 껍질을 놓고 중심에 귤을 놓고 중심을 바늘로 실을 든든히 당겨 안으로 맺는다.

이 책들을 읽었습니까?

여기에 소개한 책들은 최근에 나온 책들의 일부입니다. 이 책들은 많은 소년단원들이 읽을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들은 말합니다 : —우리 나라의 유명한 작가이며 학자였던 박 연암 선생은 《어진 사람이 일생을 끝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책 읽는 일이다》라고 가르쳤다고.

우리는 책에서 오랜 옛날부터 인민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알 수 있습니다.

책은 소년단원들의 친근한 벗입니다.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칠 성　리 원 우　리 동 무
송 정 우　신 진 균　최 윤 호

1957년 8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8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8 호 (총95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560　값 25 원　80,000부 발행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가 작품(포스타) 박 락용 작